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에 경찰 협조 부탁”



조지호 경찰청장(앞줄 왼쪽)과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앞줄 오른쪽)이 양측 배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조지호 경찰청장, 신임 인사자 한교총 예방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최근 한국교 회총연합(한교총)을 예방하고 장종현 대 표회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조지호 청 장은 서울경찰청장에서 지난 7월 제24대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조지호 청장을 맞이한 장종현 대표회 장은 “국민 안전과 민생을 행기는 일에 불철주야 앞장서시는 경찰들에게 경의 를 표한다”고 말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 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들을

살뜰히 챙기는 청장이 되어달라”고 당부 했다.

조 청장은 “경찰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 어려운 것 이 현실”이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화답했다.

장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동성애 확

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 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 도회’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장 대표회장은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동성애와 동성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 고 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확대를 막기 위해 10월 27일에 200만 성도가 모이는 기도회를 연다”며 경찰의 협조를 부탁했 다. 장 대표회장은 “이것은 종교계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와 질서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문제”라고 강

조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경목제도의 활성화와 경찰선교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눴으며, 기독교계와 경찰의 유대와 협력 속에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경찰청 김병우 경 무인사기획관과 빙중석 경무담당관이 함께 했으며, 한교총에서는 신평식 사무총장과 예장 백석 김종명 사무총장, 장형준 총무가 배석했다. 김진영 기자

고신, 동성커플 피부양자 우려 성명… 10·27 집회 참여 결의

교인 수는 지난해보다 6,810명 줄 378,376명

예장 고신(총회장 정태진 목사) 제74회 총회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총회 둘째날이었던 11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우려 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고신은 이 성명에서 “고신교회 2,100 교회와 40만 교인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대법

게 스며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 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동성애 동성혼이 사회에 자연스럽

이들은 “대단히 안타깝고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사법부와 압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지혜와 분별력으로 판단할 것을 호소하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다른 교파와 교단 교회, 기독교

인 양심 있는 별조인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며, 저항할 것을 천명 한다”고 했다.

고신은 이번 총회에서 오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릴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에 총회적으로 참여할 것도 결의했다.

한편,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

월 기준 등록교인은 378,376명으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해 385,186명보다 6,810 명이 줄어든 수치다. 집계를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 동안 감소한 교인 수는 93,638명이다. 교회 수는 2016년 2,024개에서 올해 2,123개로 소폭 증가했다. 목회자는 지난해에 비해 89명이 증가한 4,356명이다. 김진영 기자

기감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이광호 목사 자격 논란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 후보 자격 취소 요구하는 고소장 제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오는 26일에 진행되는 가운데 감독회장 후보 기호 1번 이광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가 제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는 최근 감리교본부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인 기호 1번 이광호 목사의 후보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일 기자회견을 가진 박 목사는 고소 이유로 “이광호 목사는 2022년 4월 21일 서울연회 감독으로서 키어신학자인 테드 제닝스의 사상을 계승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한OO 교수(당시 전도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연회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OO 교수 가 쓴 신앙고백서를 통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악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과사실이 있는 자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박 목사는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이광호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초가 되는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 편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 1) 종교의 강령 제1조는 ‘성삼위일체를 믿음 제2조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사람이 되심 제3조는 그리스도의 부활 제4조는 성신 제5조는 성경이 구원에 축복 제6조는 구약은 신약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 없음 제7조는 원죄에서는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가리지가 아니라, 포도원을 하무는 여우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생명을 구원해야 할 목사의 직분은 이를 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으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를 왜곡함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며 “이는 반성 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감리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는 자들이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아니고 무언가”라고 했다.

박 목사는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어떤 일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잘못된 길에 있는 자들을 바르게 처리함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감리회 목사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집회인 키어집회

기감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장요한 기자

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지지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를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용납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경을 해체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1인의 사건이 6인이 되어 그들은 반성경적인 형태를 악성종교와 같이 퍼뜨리며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서울연회 감독 재임 시절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 주었다”며 “그러므로 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하여 이제라도 감리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이며, 이광호 전 서울연회 감독은 감독회장의 자리를 탐하기 보다는 감독 재임 시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감리교회가 더욱 어지럽게 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통합 증경총회장단 임원단, 김의식 총회장에 총회 불참 권고



예장 통합총회 증경 총회장단 대표 린인식 목사(임원단이 김의식 총회장(사진)에게 오는 24일부터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리는 제109회 총회에 불참해줄 것을 권고했다.

임원단은 권고문에서 “최근 야기된 여러 일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안팎의 여러 염려 하는 말들을 듣는 우리 증경총회장단도 깊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총회장의 총회 참석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이에 우리 증경

총회장들은 긴급 임원 모임을 통해 총회장의 총회 참석이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총회 역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8일 김 총회장께서 김영길 부총회장에게 제109회 총회 불참 의사 표명과 함께 ‘총회 개회 및 제반 운영사항’을 일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와 같이 제109회 총회 불참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원단은 “총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증경총회장단의 충심을 이해하시고 제109회 총회 불참 권고를 수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장 이슈

와 관련해 “윤리적, 정치적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총회, 노회, 교회 차리 회 산하 모든 구성원은 헌법권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며 “또한 헌법권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일자리도 책별(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차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김 총회장이 속한 영동포노회 기소자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위반행위”로 김 총회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 최근 “성경상의 7계명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김진영 기자



“제2의 성령운동 통해 영산의 목회·선교·신학 계승을”

제6회 조용기 5.3.4. 월드미션 심포지엄,
13일 조용기 5.3.4. 월드미션홀서 개최

조용기 5.3.4. 월드미션 심포지엄은 “제6회 조용기 5.3.4. 월드미션 심포지엄”으로 개최된다. 다음 발제 순서는 배현성 목사를 좌장으로 △최문홍 목사(전 한세대 대학원장)가 “영산과 최자실 목사의 성령 운동” △이수구 선교사(일본복음선교회(JEM) 대표)가 “일본 기독교 인구 1%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일본선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망” △이엘립 목사(통일소망선교회 대표)가 “북한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발제된다.

먼저, 기념 메시지를 전한 장혜경 총장은 “우리 학교에는 꿈이 있다. 세계 선교의 영적 본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자로,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으로 ‘아멘’하고 가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여기에 모였다”며 “오늘 발제되는 내용들을 잘 새겨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학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회사를 전한 배현성 목사(전 한세대 대학원장)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두 분(조용기·최자실 목사)이 남겨놓으신 영적신앙적 유산을 발전시켜 세계로 뻗어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는 것”이라며 “이 시간이 두 분



제6회 조용기 5.3.4. 월드미션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구 대표, 배현성 목사, 장혜경 총장, 최문홍 목사, 이수구 선교사, 이빌립 목사) © 장요한 기자

가를 “미래의 성령운동은 기존의 성령운동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간 드러난 부정적인 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첫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산과 최자실 목사의 성령운동은 기도, 성령과의 교제와 동업, 설교, 신유, 전도와 선교, 사회구원과 자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령운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했다. 긍정적인 면으로 △기도운동 확산 △성령세례(종만)의 중요성 일깨움 △신유에 대한 이식 변화 △예배의 간신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교회 성장에 기여 △선교운동 확산 등을 꼽았고, 부정적인 면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불균형 △세속화 △사회와 자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부족 등을 꼽았다.

최 목사는 미래의 바람직한 성령운동의 방향과 제2의 성령운동에 대해 제언하

기해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일본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미 7천여 개의 주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교회들이 재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하며, 훈련된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 일본교회가 하나님 되는 연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 됨을 이룰 때 나오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한국교회는 일본교회를 살려내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교사는 “한국교회는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3분의 1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한 나라”라며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왜 이러한 큰 부흥을 하락하셨는가. 틀림없이 이웃을 돋고 나누라는 선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바로 영적으로 헬벗고 굶주린 내 이웃, 일본에게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산이 설립하신 국내의 유일한 신학교인 순복음영산신학원과 순복음영산목회대학원에서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도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2의 성령운동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모델을 따라가는 제2의 성령운동을 통해 영산의 목회와 선교와 신학을 계승하고,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조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 특히 아시아 대륙 선교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의 부흥, 이웃 일본교회 섬길 사명 있어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이수구 선교사는 “30여 년에 걸쳐서 일본교회와 지도자들은 힘과 성성을 들여서 선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땅에 선교에 진전이 없음을 보며, 패배의식을 지나 이미 체

계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주제사상 이념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기도 해야 하며, 북한동포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북한선교 교육이 각 교회마다 필요하다”며 “복음통일은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이 있다”고 했다.

예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며 “먼저, 북한의 사회 영적 이해로써 북한 체제의 기초와 역사,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선교의 다양한 선교영역들의 역사와 평가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국에서 북한선교의 지식뿐 아니라, 현장경력을 가진 전문적인 강사들을 세워 북한선교학교, 통일선교학교, 통일지도자학교, 통일비전학교, 통일선교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선교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북한선교 실천을 해야 한다”며 “북한을 불잡고 있는 영적 어두움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영적 싸움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다. 중보기도를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선교는 북한 땅에 들어가 하는 것만이 아니다. 북한선교에는 해외로 나온 북한 주민들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매고 먹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구심적 선교도 있다”며 “해외로 나온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키우며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의 북한 출신 사명자들을 키우고 세워야 한다”며 “우리 주변에 다가온 북한 동포들이 탈북민들을 품는 것과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통일준비이며 북한선교이다. 북한 내에 확산되고 있는 북한 지교회들도 해외 탈북자 양육 사역의 열매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정규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여 목회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95% 이상이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사명자로 헌신했다”며 “한국교회는 해외 미션홀 양육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 후원하며 이 사역에 준비된 선교사들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14일에는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 예배가 진행됐다. 기하성(순복음영산) 이사장과 목사의 사회로, 추모찬양과 위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설교, 축사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다.

장요한 기자

쌀소비촉진 법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아침밥 먹기로 시작하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자살한 기독교인의 구원과 장례에 대한 문제

이상원 교수, 성산콜로키움에서 유가족 돌봄 방향 제시

하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자살한 가족을 가진 기독교인 유가족 돌봄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신양고백이 있었고 신양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가족 구성원은 자살 때문에 그동안 행했던 신양고백이나 신양생활이 모두 허사가 되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하는 신학적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족 구성원을 가진 기독교인 유가족을 돌보는 문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인 유가족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자살한 가족 구성원 사후의 운명 곧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자살한 가족 구성원이 신양고백이 있었고 신양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때문에 구원에서 배제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면 유가족은 헤어 나오기 어려운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살한 가족의 장례는 어떻게 치려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봉착

하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자살한 가족을 가진 기독교인 유가족 돌봄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신양고백이 있었고 신양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가족 구성원은 자살 때문에 그동안 행했던 신양고백이나 신양생활이 모두 허사가 되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하는 신학적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9월 조찬기도회 가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최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428차 월례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강사로는 OC기독교협의회 부회장이자 주님의 은혜길교회 담임 이창남 목사를 나섰다.

조찬기도회는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민김 이사장의 대표기도 후 이창남 목사가 '기도와 간구로'(일 4:4-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기도는 주 안에서 하는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아 아닌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

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 특별히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미국을 위한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돌아볼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OC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연합회 사역과 회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김도영 장로(연합회 감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2부 순서는 OC 및 남가주 교계의 최근 소식을 전하고 2024년 하반기 계획 중인 교계 행사에 대해 윤우경 전 이사장이 소개했다.

그는 지난 8월에 제3차 OC영적대각성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9월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새벽기도회와 목회자세미나, 사모블레싱 나이트가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쳤다. 올해로 3년 연속 진행된 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는 30대에서 50대

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차세대 목회자 21명을 강사로 매일 새로운 설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기도했다. 이

어진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감사한인교회 원로 김영길 목사와 시드교지회 권혁빈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교회성장과 사역을 위한 목회자의 사명과 실질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뉴미디어 시대에 IT 및 SNS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한국에서 4차산업 전문가로 활동 중인 남대니 목사가 특별 강의했다.

한편, 연합회는 주력 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오는 10월 14일 로스 코요테 골프 클럽에서 갖는다. 연합회는 그동안 4회에 걸친 골프대회와 올해 봄 성가합창제를 통해 모아진 현금으로 197명의 학생에게

김민선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hatGPT사역 전략세미나 개최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 ⓒ학교 측 제공

남가주 대표 한인신학교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이하 GMU)와 AI를 통해 미래목회를 준비하는 AI MISSION의 공동주최로 열린 ChatGPT사역 전략세미나가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ChatGPT사역전략 세미나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AI를 활용하여 교회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목표로 신앙 공동체와 목회, 선교,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되었다.

1부 발제를 맡은 AI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ChatGPT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강단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며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ChatGPT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Ai mission 이종희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실질적인 ChatGPT를 활용법과 목회 카테고리별로 접목해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으며 3부에

서는 미션어웨이크 대표이자 미래목회전략연구소 공동대표인 김광근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ChatGPT 사연을 통하여 이 시대 AI가 할 수 있는 목회 영역들을 소개했다.

또 세미나에는 현장 50여 명, 온라인 ZOOM 20여 명의 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ChatGP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목회

추석맞이 한인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잔치 열려

남가주교협회(회장 최영봉 목사) 후원, 방주교회(김영규 목사) 주최로 한인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잔치가 12일 오전 11시에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쌀 한포대와 이조캐더링에서 후원한 점심 도시락을 받아갔다.

남가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

난하게 되심은 그의 기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했다. 주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리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부유하신 분"이라며 "

예수에게 나아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

한 것인지 모른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전

했다. 이날 11월 선거에서 코리아타운이



사랑의 쌀을 나누는 모습. ⓒ주최 측 제공

속한 10자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도 참석해 한인타운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13일과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몬트 1-2가 사이에 있는 샘카뮤니티교회(샘신 목사)에서 쌀 나눔행사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사랑의 쌀 나눔잔치 예배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제21회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 열린다

제21회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가 9월 29일 오후 5시 오렌지 카운티 브레이아시에 위치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업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는 Joyous Children's Choir, 나침반교회 성가대, 이아리네 중창단, 코로나 뉴송교회 성가대, 바리통 류정상, 테너 오우영, Teen Challenge Orange Choir, 바이올린 Victoria Chun, 클라리넷 Lydia Kang, 첼로 Isaac Chun, 세소폰 주 훈 등의 연주한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지난 30년 전 1994년 김석기 목사가 창립한 이래 캘리포니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소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역과 후원을 해왔다. 또 ▲가주 연방 정부 교도소 다인 종 대상 예배사역 메시코 샌 루이스 리



김민선 기자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김홍연 담임 목사 위임예배 및 임직감사예배 드린다

시애틀평강장로교회는 오는 22일 오후 4시 김홍연 담임 목사(사진) 위임 및 임직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김홍연 목사의 시애틀평강장로교회 3대 목사 위임식과

함께, 이 교회의 집사 안수 3명, 권사 임직 3명 등 총 6명의 임직자를 세울 예정이다.

시애틀평강장로교회는 예배와 차세대 교육, 선교와 제자양육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더욱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있다.

김민선 기자

ILDONG
후디스



일동후디스의 50년
생애주기 영양연구를
토대로 완성시킨
세심한 영양설계

시니어의 건강을 위한
5대균형영양
웰에이징 건강설계
4종 식물성 복합물

고칼슘, 오메가3,
식이섬유
소화가 편안한 산양유



구입 문의 1577-1170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식사량이 부족하여
보충이 필요한 부모님
지속건강과 활력을
원하는 중장년층
소화가 잘 되는 균형영양식이
필요한 어르신

제조 및 판매: 일동후디스(주)

“평화와 화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핵심 사명이자 절실한 과제”

‘한반도 평화와 화해: 로잔 대회에 앞서 열리는 컨설팅’
9월 20~21일 DMZ 인접 지역, 인천국립대 송도캠퍼스서 진행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직전, 전 세계 크리스천 리더가 이 시대 한반도의 최대 과제인 한반도 평화와 화해, 치유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을 순례하고, 기도하며,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전 행사가 개최된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DMZ 인근 및 인천국립대학교 송도캠퍼스 23호 빌딩 대강당과 주변 건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 로잔 대회에 앞서 열리는 컨설팅’(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 Pre-Congress Consultation)이 진행된다. 이 모임에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제4차 로잔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각국 크리스천 리더 100여 명과 로잔대회 참가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 리더 10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해 DMZ 방문, 저녁 예배 및 기도, 컨설팅을 통해 함께 남북한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로잔대회 참가자와 비참가자들, 함께 ‘한반도 평화’ 이슈 다뤄

이번 컨설팅 주제는 ‘홀 인 홀: 분열의 땅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다(Hole in Whole: Seeking Wholeness in a Divided Land)’이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자국으로 구명 난 손이 전제 콘셉트이다.

로잔운동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면, 이번 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한반도는 여전히 가족,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분리하는 고통스러운 분열의 상처가 있는 현장이다. 컨설팅 준비팀은 “한반도의 구명 난 DMZ를 방문하고 나서 그 구명 난에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구명 난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심정아 작가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명 난 손과 발을 형상화 한 작품 ‘스티그마 시리즈’가 매인 무대에 세로 8m 크기로, 로비에는 그보다 작은 크기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과거에 북한 사역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수단, 팔레스타인 등 지금도 내전, 분쟁 중인 국가를 포함해 30개국의 선교지도자가 DMZ를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소그룹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 나라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구명들은 우리만의 역사 속 고민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아픔이고 전 인류의 실존임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구명 나 있는 흔적들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20일 오전부터 DMZ와 인접한 민간인통제구역, 기타 역사적 장소를 투어한 후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인천국립대학교 송도캠퍼스 23호 빌딩 대강당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예배 및 기도를 드린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 컨설팅 준비팀



(왼쪽) 컨설팅 전체 코디네이터 김종호 NARI 대표가 대회 주제를 콘셉트로 제작한 심정아 작가의 ‘스티그마 시리즈’ 작품 옆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지희 기자 (오른쪽) 지난 6일 컨설팅 정기 준비 모임이 어린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 준비팀



DMZ 방문 코디네이터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은 “관문점과 도라산 전망대는 현 상황에서 방문할 수 없어, 대신 분단과 전쟁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도라산 기차역, 임진각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대성동 마을 등을 돌아보고, 유판으로 북한의 기정동 마을, 개성공단 등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한 사람이 받은 북한 운전면허증, 체류증 등을 보며 우리가 지난 72년 동안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회와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예배 코디네이터 J목사는 “예배에서는

설교 없이, 세대와 민족, 언어가 다양한 7명의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 화해와 평화, 한반도를 위한 기도문을 낭송하게 된다”며 “기도문은 스페인어, 필리핀어, 영어, 조선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예정이며, 기도 후에는 성찬식이 거행된다”고 말했다. 21일은 오전, 오후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 문제와 성경을 연결하는 주제 시간은 15분간 가진 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사역자 및 전문가 세 명이 10분씩 기조발표를 한 후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고 기도하게 된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협력해야”

컨설팅 준비팀은 “원래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4차 로잔대회에 한반도 평화 세션은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개최하는 로잔대회에 한반도 화해와 평화 이슈를 다루는 세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로잔대회 준비위원회 내부 및 외부 인사들의 마음이 모여 별도의 행사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이후 로잔 본 행사에 새롭게 추가됐지만, 3일간 총 3시간여 정도가 전부다. 그래서 프리 로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로잔 본 행사는 아니나 프리 행사를 로잔 참가자들이 추가로 함께할 수 있는 행사이고, 로잔대회 공식 참가자와 비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로잔을 넘나드는 행사”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구성된 컨설팅 준비팀은 속속해서 준비 모임을 갖고, 3개월여 전부터는 서울 마포 합정동 어린양교회에서 정기 기도 모임도 진행했다.

지난 6일 어린양교회에서 열린 준비 모임에서 만난 컨설팅 전체 코디네이터 김종호 NARI 대표(전 IVF 대표)는 이 모임의 목적을 세 가지로 소개했다. 김 목사는 “첫째, 전 세계 크리스천 리더에게 한반도의 상황을 알리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사역에 동역하고 싶어서이다”라며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지역, 그리고 이를 넘어선 세계적 문제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비평화, 갈등, 아픔의 문제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고 싶으며, 이들은 기도의 동역자, 각국의 공공외교 창의적 접근을 위한 협력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둘째, 한반도의 문제를 공유하며 다른 갈등, 분쟁을 겪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또 다른 모델과 도전, 협력을 주고 싶어서이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국가 간 갈등뿐만 아니라 내전, 종교, 민족 간 갈등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각 지역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라며 “한반도 분단의 기간도 길고 심각성 크지만, 그만큼 한반도는 다양한 한 등, 협력, 연구, 사건 사례가 있으며, 이는 분쟁 상황에 놓인 타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사례, 도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반도의 사례가 특수하고 국지적인 사례에 머물지 않고, 세계 각지의 갈등과 비교하며 도움과 협력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길 원한다”라며 “특별히 참석자들 가운데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수세계 사람도 많은데 팔레스타인과 같이 평화와 화해가 절실한 국가의 사람들도 있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평화와 화해 이슈가 굉장히 궁금하고 절실한 문제임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목사는 “셋째, 한국교회에 한반도 화해와 평화,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이다”라며 “한국교회는 남북문제에 있어 상당 부분 이념화, 진영화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논의하며, 오히려 한반도 밖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믿음과 소망,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본을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전 세계적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보고 환기하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종호 목사는 “우리가 준비한 프리 로잔대회에서 다루는 화해와 평화가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토대로 볼 때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은 신앙의 사명 중 핵심적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깨닫고 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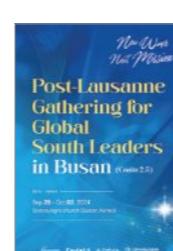
포스트 로잔 부산대회 및 COALA 2.5 대회 개최

KWMA 주최·수영로교회 후원,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하고 부산 수영로교회 등이 후원하는 포스트 로잔 부산대회(Post-Lausanne Meeting in Busan) 및 코알라(COALA) 2.5 대회가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 대회’ 직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개최된다.

원에 대한 논의에 이어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선교운동을 다루게 된다. 주요 일정은 9월 30일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KWMA 이사장)의 말씀 나눔을 시작으로, 4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위원장인 페트릭 펑(Patrick Fung), 세계복음주의



연맹(WEA) 선교위원장 제이 마탱가(Jay Matenga), 갈릴리 무브먼트의 의장 맨프레드 콜(Manfred Kohl) 등이 나서 글로벌 선교의 방향이 남반구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고, 새로운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KWMA는 “특별히 이번 모임은 로잔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동시에 COALA 2.5대회로 진행된다”라며 “COALA(Christ

Over Asia, Africa, Arab and Latin)는 2023년 한국에서 1차 대회, 2024년 태국에서 2차 대회를 가진 남반구 선교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이에 COALA 지도자들이 강대홍 KWMA 사무총장, 크리스티안 카스토(Cristian Castro) 중남미선교협의회(COMBAM·코미방) 사무총장, 마니 코레이(Manik Corea) 싱가포르 세계선교센터(SCGM) 대표, 이삭 사운다라자(Isac Soundararaja) 인도선교협의회(IMA·India Missions Association) 사무총장, 잭 사라(Jack Sara) 베들레헴 바이

블 칼리지(Bethlehem Bible College) 학장 등이 COARA 운동의 정신과 남반구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선교 운동, 남반구 선교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 비전 등을 공유하게 된다. 크리스티안 카스토는 2025년 4월 중미 파나마에서 열릴 COALA 3차 대회에 대한 방향과 주제도 나눌 계획이다.

KWMA는 “이번 대회는 글로벌 선교가 북반구 중심의 선교에서 남반구 중심의 새로운 선교운동으로 전환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지희 기자

경남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생애주기별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영유아, 청년, 어르신 등 지원
- 위기관리센터 구축
- 저소득층 종합검진 지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과 동행하겠습니다

- 통합복지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 천원의 아침식사
-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새로운 도전으로 경남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과감한 대학혁신지원
- 미래전략산업 육성
- 균형발전





美대선 앞두고 기독교인 지도자 3백여 명 '복음주의 신념 고백' 발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백여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신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신념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전미 라티노 복음연합'(National Latino Evangelical Coalition) 회장이자 설립자이며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개더링 플레이스 하나님의 성회'(The Gathering Place Assemblies of God) 교회를 이끄는 가브리엘 살게로(Gabriel Salguero) 목사는 "전국의 오순절파와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폭넓은 지지에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투표 방식, 복음의 중심성을 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난 그것이 좋은 자국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고백 문서를 면밀히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참여하고, 우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이들을 배제하지 말자'는 목회적 부류 이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목할 만한 서명자로는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 자유위원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전 위원장, 전미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갈렌 케리(Galen Carey) 목사와 월터 김(Walter Kim) 목사, 앤드 캠페인(And Campaign)의 저스틴 지보니(Justin Giboney) 목사, 레드레터 크리스천스(Red Letter Christians)의 진보적 기독교 작가 세인 클레이본(Shane Claiborne), 기독교인 래퍼 레크레(Lecrae), 대형교회 목사 조엘 헌터(Joel C. Hunter)가 있다.

앞서 '해리스를 위한 복음주의자' 단체의 애케미

니 우완, 무어, 클레이본을 비롯한 일부 서명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가 복음주의 공동체 내에서 받은 지지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살계로 목사는 "이 문서는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공적인 참여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라는 요청이다. 난 목사로서 이런 것, 또는 저런 것을 겨냥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 언어이고, 목회적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살계로 목사는 해당 문서를 "공적 영역에 대한 존중심,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어조, 그리고 성경의 진리로 참여하라는 복음 중심의 성경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교회와 가족 중에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모두 있다"면서 "그들이 고백문을 주의깊게 읽어본다면, 이것은 복음을 주된 충성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설명은 "미국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의 순간에 처해있다"고 인정하며 성경을 수 차례 언급했다.

이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이며 교회의 유일한 머라이십을 확인한다(골로새서 1:18). 어떤 정치적 아름이나 지상의 권위도 그리스도께 속한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빌립보서 2:9-11). 우리는 당파적 의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그의



©pixabay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야고보 4:28)"라고 선언한다.

이어 "우리의 예배는 오직 그에게만 속한다(출애굽기 20:3-4).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떤 정당, 지도자, 운동 또는 국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있기 때문이다(고린도 전서 15:24-2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사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세주로 기쁨 부음을 받았다는 거짓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인의 충성심이 어떤 정치적 정당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우리는 인간 지도자에 대한 헌신을 장려하거나 거룩한 예배를 당파심과 혼동하는 모든 메시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우상 숭배와 그 사자들이 약속하는 거짓된 안보와는 달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요일 4:18). 경건한 동기의 불법적인 형태로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성경의 진실에 복종한다. 정치적 반대자를 포함해 타인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출애굽기 20:16). 단밀한 정치적 의제를 승인하거나 증오를 부추기거나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성경을 오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믿는다(출애굽기 20:7)"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세상의 분열을 치유한다고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당파, 민족 또는 국가적 경계에 따라 나누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인종, 문화 또는 민족에 따라 인간 가족이 영구히 분리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모든 메시지를 복음에 대한 거부로 규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요한복음 18:36). 따라서 교회는 모든 사람, 사회, 통치 당국에 예언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상의 정치 세력과 분리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 오염을 둘러워하여 교회가 사회 문

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와, 교회를 단순한 정치 또는 사회적 권리의 수단으로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나아가 능력, 정체성, 정치적 신념, 또는 소속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존중하도록 요구한다(요한복음 13:34-35)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품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정치적 영적 지도자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행동과 성품의 열매에 따라 지도자를 평가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약속이나 정치적 성공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 된다(마태복음 7:15-20). 어떤 지도자가 교회에서든 정치에서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효과성과 신실함을 혼동하지 않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는지 주의 깊게 분별할 것(요한일서 4:1)"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도자의 권력, 인기, 또는 정치적 효과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확증한다는 거짓말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능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짓말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스코틀랜드 복음연맹, 새로운 대표 임명돼



스코틀랜드 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 Scotland)의 새로운 대표가 임명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린 페터슨(사진)은 최근 임명됐으며 스코틀랜드 전역의 교회를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예수님이 알리는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페터슨 신임대표는 자신의 임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직원, 회원, 전국 지도자들, 더 넓은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모라비아 교회의 모범에 영감을 받았으며 스코틀랜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라비아 교인들의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00년간의 24시간 기도나 희생적인 선교 활동을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서 연합이 어떤

대만 골드아폴로사 제품 도착전 사전 조작으로 1~2 온스 폭발물 이식 “휴대폰 안쓰고 호출기 통신 수단 삼은 헤즈볼라의 아킬레스건 타격”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폐이저(호출기)는 페이저에 사전에 심어진 1~2 온스(28.3~56.6g) 가량의 폭발 물질이 원격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NYT는 헤즈볼라가 대만의 골드아폴로사로부터 주문한 호출기는 레바논에 도착하기 전에 폭발물질이 심어지는 조작을 거쳤다고 미국 및 기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대부분은 이 회사의 AP924 모델이지만, 다른 골드아폴로 모델 3개도 선적에 포함됐다.

폭발물은 무게가 1~2온스에 불과하며 호출기 배터리 옆에 이식되어 있었다. 폭발물을 폭발시키기 위해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도 내장되어 있었다.

27일 오후 3시 30분 호출기가 헤즈볼라의 지도

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두 명의 관리가 밝혔다. 메시지는 잠시 후 폭발물을 작동시켰다. 이 장치는 폭발하기 전 몇 초 동안 '삐소리'가 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다.

레바논의 보건부장관은 국영 언론에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8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조작했다고 비난하면서도 호출기 폭발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배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폭발의 강도와 속도가 일종의 폭발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회사 위드시큐어의 전문가이자 유로풀의 사이버범죄 고문인 미코 히포넨은 "이 호출

기는 이런 종류의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폭발의 크기와 강도를 보면 배터리만 폭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텔아비브대 사이버보안 분석가이자 연구자인 캐린 엘리자리는 "이 공격이 헤즈볼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뒤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해온 호출기를 공격한 것은 "통신의 아킬레스건을 강타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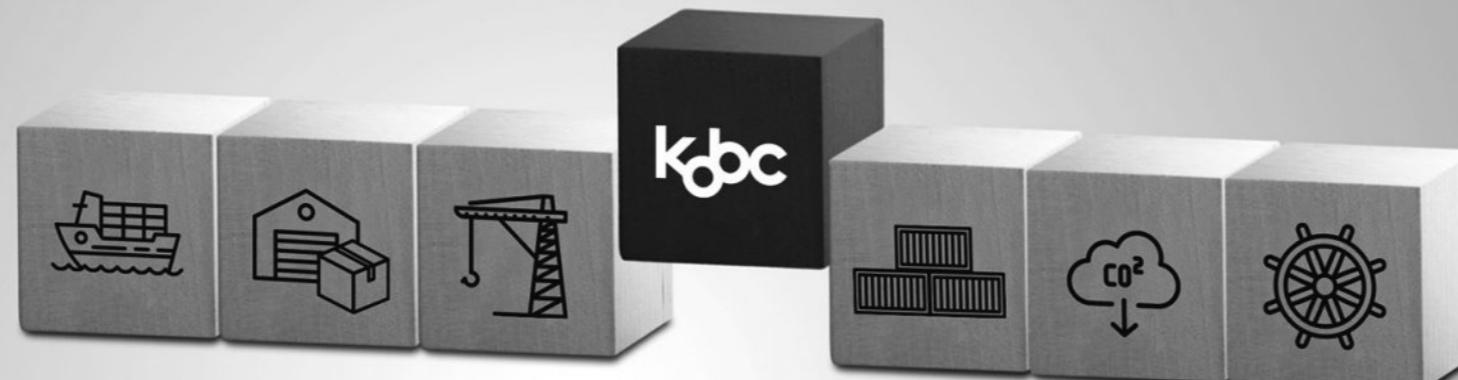
그는 "호출기가 이전에도 공격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정교한 공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전역의 대원들에게 페이저를 배포했고 일부는 이란과 시리아의 헤즈볼라 지자들에게도 전달됐다.

다만 호출기를 언제 주문해 레바논에 도착했는지, 도착 전 폭발물 이식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자룡 기자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KOC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함께 맞이할까요? 새로운 희망

새 가족을 만나는 일에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지 않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신한은행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맞이할까요? 새로운 희망



가이 가이 즐 츠산 고개 대산 유태

기간 및 한도 : 40주, 주 10만원 한도
*3만작 한정 및 축하금 선착순 1만명까지

© 2007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ll rights reserved.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BN: 978-0-07-338309-5



최약계층 나이브브 대상 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및 한도 : 중위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 불분 당 최대 50만원

*참고: [1차] '23년 10월 ~ '24년 3월, [2차] '24년 10월 ~ 한도소진시까지



40주, 맘(Mom)적금 알아보기

신한은행은
대한민국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 40주, 암(Mom) 적금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만기까지 급식 기업 기간 40주, 매주 10만 원이 이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인개계좌] 판매기간 : 24.12.31까지 30주 한도, 최고 연 5.0% [24.08.19 현재, 세전], 기본이자율 연 12.5% + 우대이자율 최고 연 2.5% - 우대이자율 0% [목표율상 우대] : 기업기금 납입회차 90% 이상 납입 달성 시 연 2.0% [2] [지역출산 우대] : 상품 보유기간 중 지녀 출산 시 연 0.5% [인기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승인] - 출산수당 30만 원 : 청금기간 중 지녀를 출산하고, 출산자액이 30만 원 이상인 암(Mom) 고액형 선착순 1인당에 연계 계좌로 축하금 제공 (기족관계증명서 제출·승인) - 예상 수취 이자액 : 매주 10만 원씩 40주 납입 기정, 최고 이자율 연 5.0% 적용 시 세전 78,063 원, 기본이자율 연 2.5% 적용 시 세전 39,036 원 예상 [자축금액, 자축시점, 적용이율을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기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판에 기간별 중도부여율 및 만기후 이자율 적용 ※ 계좌 입금 일정과 출금 일정 등록 시 원금 및 이자금 계좌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 입금 출금 이체 등 전액 변동 불가 ※ 보고서 출금자 축하 가능, 공동명의 계좌 분할 암도 제재지 불가, 담보 제공 가능, 만기일 전 영업일 까지 2회 일부 해지 가능 ※ 이 금융상품을 기업(계약자는 경우 금융산사 보호법 제9조 제한에 따라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9년 5월 20일까지 기본은행이 애디 보호 상품과 합산이 보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일자 제 2024-13857-1 [2024.08.19 ~ 2025.08.18]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행 신한은행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골프장 주변 배회

FBI, 휴대전화 기록 통해 용의자의 행적 추적... 추가 수사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 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루스가 법행 당일 약 12시간 동안 치 골프장 주변에서 기다린 것으로 밝혀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루스의 휴대전화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FBI가 통신사로부터 입수한 기록에 의하면, 루스는 법행 당일인 전날 오전 1시 59분경부터 범행이 발각된 오후 1시 31분

경까지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 인근에 머물렀다. 이는 용의자가 장시간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음을 시사한다.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5~6번 훌을 돌고 있었다. 비밀경호국 요원이 앞서 향후 이동 경로를 점검하던 중 울타리 사이로 뛰어나온 종구를 발견하면서 암살 시도가 무산되었다. 비밀경호국 요원의 선제 발포로 인해 루스

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면하지 못한 채 도주했으나, 곧 추격전 끝에 체포되었다.

루스의 범죄 이력도 드러났다. 그는 2002년 대량 살상·파괴 무기 소지, 경찰 관 저항, 은닉 무기 소지, 신분증 사기 등 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10년에는 도난품 소지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미국 연방법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서 루스의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현장에서는 조준경이 달린 SKS형 소

총, 디지털카메라, 배낭, 음식이 든 비닐봉지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총기 일련번호가 지워져 있어, 용의자가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FBI는 현재 민간인 목격자 7명을 비롯해 루스의 가족, 친구, 전 동료들까지 폭넓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열혈 지지자로 알려진 루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FBI는 모든 게시글과 온라인 검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범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루스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

월까지 민주당에 소액의 기부를 19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기부 이력이 없어, 정치적 성향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로널드 브라운경호국 국장 대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멜

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 마리라고 주변의 보안은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루스는 중범죄자의 총기 소지 및 일련번호가 지워진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혐의들은 각각 최대 15년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수사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루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식 기자

여야 대치 정국 재점화, 특검법·지역화폐법 상정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 19일 본회의 상정 방침... 여당 반발, 야당 처리 의지

국회가 추석 연휴 직후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재벌A 손준성 검사(제상법) 특별검사(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 의장의 이번 결정은 여야 협치를 둘러면서도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선거 개입 의혹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 내부에서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 말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

고 있다. 정철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6일에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의 재표결도 예정되어 있어 정국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모두 민생 입법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입법 과제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6대 분야 170개 법안을 야당은 정부 견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165개 법안을 각각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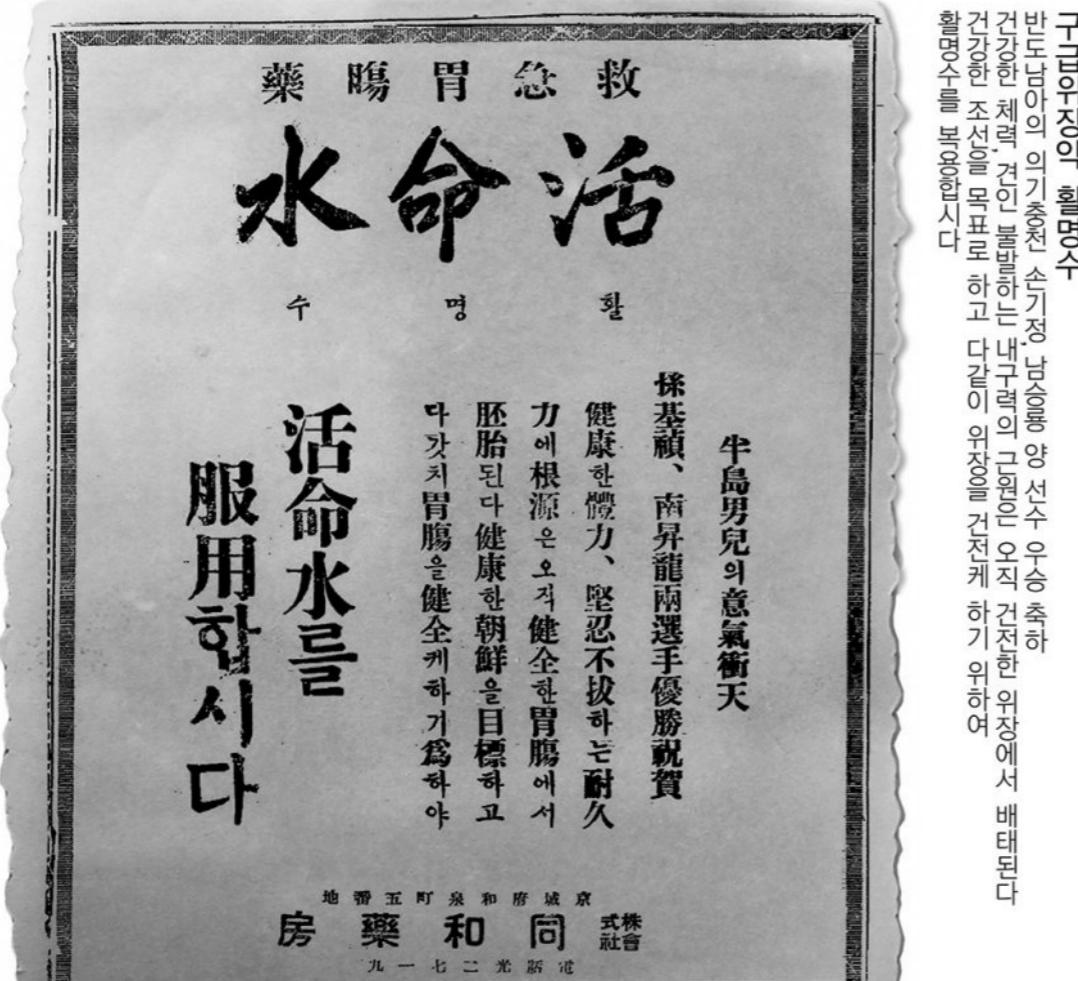


조국 국정혁신당 대표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가운데 회의장 모니터에 김건희 여사 사진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의도 순탄치 않은 전망이다. 정부의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격론이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민생 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의제들을 뒷전으로 밀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국 기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다음 달 재개 전망

검찰, 압수물 분석 후 다혜씨 소환 계획...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의 이미징(복제)과 선별 작업을 마치는 대로 대검찰청 산하 국가 디지털포렌식센터나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자료를 넘겨 신속히 증거물을 복원할 계획이다. 당초 추석 이후 다혜씨 소환이 예상됐으나, 압수물 분류 작업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뇌물수수 금액은 약 2억 원으로,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받은 월급과 다혜씨의 태국 이주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취업 제공과 태국 이주 혜택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보내던 금액이 보전돼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획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스터항공 운용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 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SNS

사회적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동시에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용국 기자

청소년 SNS 규제, 세계적 입법 추세... 국내는?

정신건강 보호 vs 미디어 선택권 침해... 실효성 논란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SNS의 선정적·폭력적 콘텐츠가 청소년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미디어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앤서니 앤더슨 총리가 올해 안에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한 시범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시드니에서 발생한 16세 소녀의 주교 흉기 공격 사건 등 청소년 폭력·혐오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SNS가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

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6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부모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SNS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SNS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더

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 가입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런 입법 논의의 배경에는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앱과 콘텐츠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조절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SNS 규제 도입 소식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과도한 SNS 사용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우려하며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과거 개입 셋다운제의 사례를 들어 SNS 사용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동화약품



그린닥터스, 추석 연휴 맞아 케냐에서 무료 의료봉사 진행

현지 근로자와 주민 대상 진료…
제약업계와 협력해 1억 원 상당 의약품 지원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가 추석 연휴를 맞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은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케냐 마사이마라 등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운영원그룹 원장)은 “의사 5명을 포함한 15명의 의사봉사단이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를 거쳐 23일까지 11일간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마라 등에서 아프리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고 전했다.

전했다.

그린닥터스 케냐봉사단에는 정근 이사장(안과전문의)을 비롯해, 정가정의원 정종훈 원장(가정의학과전문의), 인제대의대 박석주 교수(부산백병원 신장내과), 정신건강증진센터 김상엽 소장(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윤선희 이사장(안성형·병리학) 등 온종합병원 소속 의료진 등 5명의 의사가 동참한다. 또 박병순 사무총장, 권소현 부총장, 강순영 이사(현직 부정판사), 윤지민 이사(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부 본부 과장) 등 그린닥터스 임원과, 김은전 마이금융파트너 대표·허소라 한야기



그린닥터스 케냐봉사단 기념 사진. ©그린닥터스재단

제 이사·이은주 온그룹의료재단 이사 등 여성 기업인, 의료전문채널 ONN닥터TV PD 3명 등도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 첫날에는 사나그룹 케냐 근로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가 진행됐다. 사나그룹은 198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동아프리카 가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 그린닥터스는 이 의약품을 사용해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나이로비에 개설될 그린닥터스 약국에 비치할 계획이다.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이사장은 “15년 여 전에 코트디부아르 봉사 이후 또 다시 그린닥터스가 아프리카 오자로 봉사를 오게 됐다”며 “이번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활동뿐만 아니라, 케냐 국립가축연구소 등을 방문해 최근 국제 의약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수(人獸) 공통감염병’ 연구 현황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린닥터스는 케냐 나이로비에 지부를 설치하고, 케냐 의사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연수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장요한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소송, 1심 각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의 무료 소송, 법원 “소송 요건 불충분”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료 확인 소송을 각하였다. 이번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지지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무료 확인을 요구했다.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판결에서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였다. 이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12월 공대위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효력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에는 중단됐던 폐지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심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폐지안의 효력은 재차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지난해 3월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기한 것이다. 김현기

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한 달 후 이를 수리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공대위는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는 원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폐지안의 수리와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였다.

이나래 기자

“조전혁 예비후보, 교육좌파 세력에 단호하게 맞설 인물”

조교연, 기자회견 갖고 지지 선언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28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한 ‘조전혁 후보지지 교육사회시민단체연대’(이하 조교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사회 및 모두발언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연희 공동대표가 맡았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주연 이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밖에 김은혜 학부모, 송금숙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이사, 이정은 보건과 학문연구회 회원이 순서를 맡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강력한 교육권한을 갖는 교육감의 가치관은 아이들의 교육 내용과 방향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지난 10년간 공고히 자리잡은 전교조와 교육좌파 세력에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출마 예정자들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조교연

철저히 검증한 결과 조전혁 예비후보가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감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선언했다.

김연희 공동대표는 “서울시 교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진다. 더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 없는 백색간두에서 있다”며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조전혁 예비후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선언에 참여한 단체는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회, 망포점 서울시학부모연합 교육맘톡 교육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보건학문&인권연 구소 전국청년바로서다 K자유문화지원 연대 민생동행 자유민주공동체 공익민주

인권연대 국민의희망 자유평화연대 자유민주네트워크 강남을움직이는 사람들 한국글로벌스포츠건강문화센터 (사)배움과돌봄네트워크 중국인문경영연구소 서울시검도협회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한국부파방지신문 유암문화재단 강남포럼 FIRSTKORA시민연대 국민계몽운동 본부 나는부모다협회 다시뛰는강남스타일 등이다. 김진영 기자

샬롬나비, 청량리 노숙자 및 독거노인 위한 섬김 사역

예배 드리고 점심 배식봉사·
사랑의 쌀 전달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주석을 앞두고 최근 서울 청량리 주변 노숙자들을 돋는 가나안쉼터를 방문해 예배를 드린 후 점심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주변 독거노인 기장을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예배에선 살롬나비 자문위원인 최철희 선교사(시이어선교한국 고문)의 사회로 살롬나비 구제기독이사인 영락교회 이은희 집사(영기엔트리 대표)가 기도했고, 살롬나비 중보기도 이사인 최성대 목사(라이프성령원 교수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마 4:4)이라는 제목의 설교했다.

샬롬나비 상임대표인 김영한 박사가



사랑의 쌀 전달식을 마치고. ©샬롬나비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가나안쉼터 원장인 김정재 목사가 가나안쉼터에 대해 소개했으며, 살롬나비 사무총장인 김윤태 박사(백석대 기독교문전대학원장)의 선창으로 살롬나비 행동강령 제정과 광고가 있는 뒤 육호기 목사(GMS 원로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샬롬나비는 학문을 연구하고 목회하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 시민단체다. 매년 3회에 걸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김과 나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청량리 가나안쉼터(원장 김정재 목사)는 1996년 청량리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숙인을 가나안교회 교육관에서 보호하면서 부랑인과 겉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1997년 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리에 노숙인들이 쏟아져 나오자 교회가 문을 열어 노숙인을 받아들였다.

이후 노숙인을 위한 응급시설을 설치하고 노숙인 보호와 자활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층의 응급 구호 등을 위한 무료숙소 지원, 무료급식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일자리 지원, 자활 영성교육, 자활지원 사업, 임대주택 운영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우리는 간다. 기술이 끌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한적십자사

백종근 목사의 '하위령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9)



백종근 목사

◆부임 당시 선교부의 상황

1899년 5월 군산에 개항으로 조계지가 그어지자, 전진은 당국으로부터 기존의 스테이션을 조계지 밖으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은 터였다. 그는 수덕산 선교지부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해안가 구릉에 3만여 평의 대지를 매입해 스테이션 이전공사를 시작했으나 그가 전주로 떠나게 되면서 전진은 지지부진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었다.

하위령이 1904년 군산으로 부임해 왔을 당시 전진 선교사에 의해 착공되었던 학교 건물을 끝조만 세워진 채 흉측한 모습 그대로였다. 벽체를 쌓기 위한 벽돌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나마 일부 구해다 놓은 벽돌은 규격에 맞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내장 마감을 위한 타일마저도 크기가 너무 작고 불량 품이 많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게다가 병원을 짓기 위해 구입해 부지에 쌓아둔 목재는 방치된 채 눈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어설픈 것은 그 렇다 치더라도 아직 제대로 윤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교회들의 사정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도자가 없는 교회가 대여섯 곳이나 되었고, 또 다른 몇 군데에서는 인도자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는 데다 선교사를 도와 그들을 이끌어갈 조사助事を 발굴해 세운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 데다가 전진이 전주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의 소속을 군산에서 전주로 바꿔 놓은 것에 불만을 터뜨리는 교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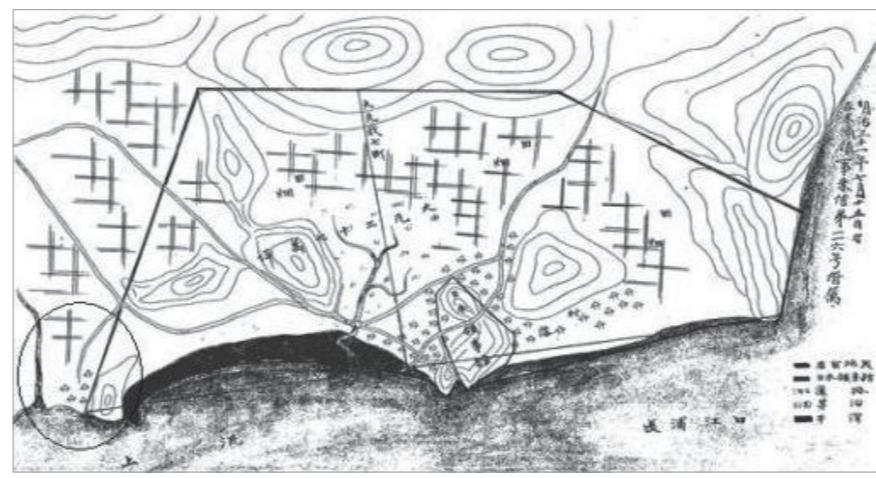
개인적으로 볼 때 스테이션에 고용된 사람 가운데 자리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이들이 눈에 띠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들의 속내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한동안 곤혹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씩 해결되어 갔다.

한편 하위령 선교사가 군산에 부임하고 나서 일년쯤 되어 라일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해 3월 만주 봉천에서는 러시아의 육군을, 5월 쓰시마 해전에서는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무너뜨린 일본이 결국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거였다.

그해 일본은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군산에 상륙시키더니 조계지 내에 여전히 남아있던 조선인들을 전부 조계지 바깥으로 내몰고 심지어 분묘까지도 이장케 했다. 그러더니 조계지를 중심으로 신도시를 빠르게 건설해 가기 시작했다. 수덕산 넘어 북쪽 해안가에서 정오가 되면 바다를 향해 대포를 쏘기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시계가 없는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려준다는 명목이었으나 엄청난 대포 소리를 내어 라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힘을 인식시키려는 심리적 효과도 노리는 듯했다.

새롭게 건설되는 조계지를 발판으로 일제는 바쁘게 움직였다. 일본인들이 물밀 듯이 들어와 시내 곳곳에 인프라를 징악하더니 군산항 부두 공사를 시작으로 1908년 전주-군산 간 신작로를 개통하면서 호남에서 수탈한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전진 기지로 만들어 갔다.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비록 수탈정책의 일환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선교사들은 내심 반겼다. 왜냐하면, 군산을 통해 들어오는 선교물을 전주로 이동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과 김제로 가는 순회사업 역시 수로보다는 육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



개항 전(1898) 군산 그림지도

문이었다.

◆스테이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다

하위령은 무엇보다도 스테이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기고, 드루가 살던 집을 개조해 다니엘 선교사의 속소로 꾸미고, 다니엘과 함께 새로운 진료소를 설계해 1906년 3월 완공을 보았다. 그 이듬해, 그동안 미루어 오던 자신과 간호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건축을 계획하면서 몇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실행으로 옮겼다. 시공에 필요한 목재는 충청도에서 별도로 금강을 통해 운반해 오기로 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벽돌과 타일, 창문, 문짝, 마루 등의 내장재는 미국에다 직접 주문을 내기도 했다.

건축공사 외에도 선교사의 숙소 근처에 오래된 우물을 대신해 새 우물을 다시 파기도 했는데 다행히 이전 우물보다 훨씬 수량水量도 많고 수질도 좋았다. 스테이션 내 진료소 건물이 완공되고 미국인 의사가 진료한다는 소문이 나자 원근 각처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기준의 시설로는 도저히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하위령은 다시 진료소 건물을 전통 한옥 양식으로 확장 증축을 구상하

고 18명의 환자가 동시에 입원할 수 있는 규모로 온돌방과 부엌, 세탁실 등의 개별 용도의 공간까지 따로 확보해 완공시켰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진료소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으나 만족할 만했다.

그해(1907) 마침 부위령 선교사가 암식년을 맞아 자리를 비운 사이, 선교부지의 명의이전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자 매도인이 군산지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으나, 하위령이 매도인과 직접 협상에 나서 3일 만에 극적으로 타협이 되면서 소송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하위령은 교회와 병원 그리고 학교 건축을 포함 제반 법적 절차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군산 스테이션의 조성공사를 조기에 완료했다.

◆팀 사역을 이끌다

하위령이 스테이션 조성공사와 더불어 선교사들의 활동을 총괄하면서 사역의 전제적인 윤곽을 파악해나갔다. 그는 지역의 모든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미 부임해 있던 분야별 선교사들과 팀 사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위령 William F. Bull 선교사는 전도 선을 타고 충남 일대를 순회하며 전도에 전념했다. 예배 쳐소마다 사람들을 물

리고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서는 다니엘을 도와 그해(1906) 1/4분기에 벌써 대여섯 건의 수술을 치러내고 있었다. 하위령은 팀 사역을 진행하면서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신분제도인 반상班常의 구별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교사들의 팀 사역의 효과에 크게 고무되기도 했다.

알비Alby E. Bull 선교사는 스테이션 구내에서 여성과 어린이 사역을 맡아 주일학교 1개 반과 주중에 4개 반을 번갈아 가르쳤다.

아이력Alexander M. Earle 선교사는 그동안 닉아온 조선에 실력으로 지역교회들을 매주 한 교회씩 번갈아 가며 설교하는 한편, 영명학교 교장으로 학생들의 경건 훈련을 지도하면서 주중에는 매일 2개 반에서 산수를 가르치기도 했다. 여학교는 교육선교사 다이샤트Julia Dysart가 맡아 가르쳤다.

의료선교사 다니엘Thomas H. Daniel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 외에도 틈을 내어 학교에서 위생학과 생리학을 가르쳤고, 주일에는 아내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간호 선교사 케슬러Ethel E. Kestler는 내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에 공부에 여념이 없었음에도

◆백종근 목사는 한국에서 공과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산업연구원(KIET)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미국에 유학 후 다시 신학으로 바꿔 오스틴 장로교 신학교(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과정을 마치고 미국장로교(PCUSA)에서 목사가 되었다. 오레곤(Portland, Oregon)에서 줄곧 목회 후 은퇴해 지금은 피닉스 아리조나(Phoenix, Arizona)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펜데믹 기간 남장로교 초기 선교역사에 매몰해 『하나님 나라에서 개벽을 보다』와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 두 권의 저서를 냈으며 그 가운데 하위령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기록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출간된 지 일년도 되지 않아 스탠포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에 이어 시카고 대학 도서관 Koean Collection에 선정되어 소장되기도 했다.

백종근 목사는 하위령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초기 남장로교 조선 선교역사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설교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남장로교 선교사 부위령(William F. Bull)의 선교행적을 정리해 접풀하는 한편 디아스포라 선교역사 연구회를 결성해 미주 한인 교회 역사를 찾아 복원하는 일에 빠져 있기도 하다.

자기효능감과 삶공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낼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무엇을 끝까지 해내고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감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일어야 할 책의 양이 너무 많고 내용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매주 북리부를 써야 하는데 많은 양을 읽는 것도 힘들지만 후반부를 읽다 보면 앞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 마디로, “내 나이에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자기 효능감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심적인 방황이 커집니다. 하지

만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고 다시 끝까지 책을 읽고 결국에는 페이퍼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학교 공부나 사업, 직장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맡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효능감”을 높

이는 훈련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분들을 누가 일상에서 이런 훈련을 시켜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삶 공부”입니다. 삶 공부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서 성숙해지 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삶공부 등록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생명의 삶과 기본과정 외에 선택 과정으로 “생명언어의 삶”을 주천합니다. 신양생활은 혼자하는 게 아닙니다. 삶공부를 하다보면 다른 목장식구와의 만남으로 색다른 교제의 깊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효능감은 물론 영적으로도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구총교회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운용 가계의 기회를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젠더퀴어



민성길 교수
연세의대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젠더

최근 젠더에 관한 신어(新語)들이 많이 등장하여 혼란스럽다. 이는 특히 젠더퀴어(gender queer) 때문에 그렇다. 원래 퀴어(queer)는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단어였지만, 현재는 뜻밖에 젠더퀴어에 사용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어차피 트랜스남성 아니면 트랜스여성이므로, 이원적(binary 바이너리)이라 한다. 시스젠더도 남자/남성, 여자/여성이라는 이원적이며, 전통적 규범을 따르므로 시스규범성(cisnormativity)이라고 한다. 그런데 젠더퀴어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기준의 이원법적인 구분을 벗어난 모든 종류의 젠더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젠더퀴어는 시스남자도 시스여자도 아니고, 트랜스남성도 트랜스여성도 아닌 비이원적(non-binary) 젠더정체성을 의미한다.

현재 여러 종류의 젠더퀴어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젠더를 가지거나(bigender, trigender, polygender, pangender), 젠더가 없다거나(agender, nongendered, genderless, gender-free, neutrois), 남성과 여성 사이의 중간 어디쯤

에 해당하거나, 남녀가 섞여 있다거나(androgynous),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거나 유동적이거나(genderfluid), 모호하거나, 의문스러워 한다거나(genderquestioning) 하는 것이다.

현재 NonBinary.org에 수십 가지의 다양한 젠더명칭들 중 의미를 알기 어려운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gendersea, genderfuzz, genderfractal, genderspiral, genderswirl, gendervex, gyaragender, libragender, ogligender, queerplatonic relationships, zucchini, ambigender, demiflux, blurgender, collgender, conflictgender, cosmicgender, crystagender, deliciagender, draggerender, demiflux, domgender, fissgender, gemelgender, gendercluster 등등.

제3의 젠더라는 개념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지역의 히즈라(hijra), 미국 인디언들 중의 two-spirit 등이 있다. 이들도 크게 젠더퀴어에 속한다.

현재 미국 정신의학에서는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를 합쳐 젠더불쾌증(gender dysphoria)이라 하며, WHO에서는 젠더비순응(gender incongruence)이라 한다. 비순응이란, 출생시 부여된 성(asigned sex at birth)에 근거한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젠더다양성”(gender diverse) 또는 “gender expansive”와 비슷한 개념이다. 또 한편 트랜스젠더는 주어진 성(sex)에 따라 기대되는 규범적 (normative)인 것과 다른 젠더 모두를 의미하기도 하는 포괄적(umbrella) 개념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젠더퀴어 사람들은 자신들은 트랜

스젠더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트랜스젠더는 자신들을 트랜스섹수얼(transsexual)로 불러달라고 요구한다.

이처럼 사람마다 원하는 의미가 다르고,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등장하리라고 보아 매우 혼란스럽다. 하도 혼란스러워 그 정체성을 각각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의문스럽다. 이러한 혼란한 신어증(neologism)의 향연은 일찍이 아담과 이브가 애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 눈이 밝아진 탓이 아닌가 한다. 정신의학에서는 신어증은 조현병(정신분열병)적 증상들 중에 포함시킨다.

젠더퀴어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다른 성소수자들에 비해 드물다. 흔히 트랜스젠더 연구에 포함되나 젠더퀴어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여, 젠더퀴어만의 상황을 알기 어렵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트랜스젠더 중 35% 또는 52%가 젠더퀴어다 한다.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약 1/3이 젠더퀴어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서구에서 젠더퀴어는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젠더퀴어는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보다 비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비아성애란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을 의미함)

젠더퀴어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트랜스젠더에 생물학적 원인이 밝혀져있지 않듯이, 젠더퀴어에 대한 생물학적 원인도, 검색결과, 연구된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의 심리적 원인, 즉 정신사회적 내지

정신역동적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는 다소 있지만, 독립적으로 젠더퀴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아마도 트랜스젠더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성정체성장애에는 인격발달 장애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젠더퀴어도 인격발달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젠더정체성은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런 비규범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는 심리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별별 이름의 젠더퀴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개인적으로 보이는 독특하고 색다른 젠더정체성들의 원인을 모두 밝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젠더퀴어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다른 성소수자들에 비해 드물다. 흔히 트랜스젠더 연구에 포함되나 젠더퀴어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여, 젠더퀴어만의 상황을 알기 어렵다. 젠더퀴어 사람들의 건강 역시 때로 연구된 바를 찾기 어렵다. 대체로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유사하리라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정상적인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정상적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에 따른 성병 같은 신체장애가 흔히 발견된다. 2019년 UNAIDS 발표에 의하면,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사람들 모두 합쳐 HIV/AIDS의 감염율은 일반인구보다 13배 높다고 한다.

젠더퀴어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최근 연구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다른 성소수자들에 비해 연구는 아직 드물다. 흔히 트랜스젠더 연구에 포함되나 젠더퀴어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여, 젠더퀴어만의 상황을 알기 어렵다.

수많은 연구들이 젠더퀴어 사람들은 자살,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가 많다고 한다. 11개의 관련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한 연구는 트랜스젠더

와 젠더퀴어 간에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에서 비교해보면, 어느 한쪽이 더 좋기도 하고 더 나쁘기도 하는 등 다양하였다. 그러나 시스제젠더에 비교해서는 젠더퀴어에서 분명히 더 나빴다.

그런 모든 연구들은 하나같이 젠더퀴어의 정신 건강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 때문이라 단정하고 있다. 이를 흔히 “소수자스트레스”(minority stress)라 칭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아마도 앞 칼럼에서 말한 LGBTQ의 정신사회적 원인으로 알려진 “적대적 소아기 경험” 때문에 젠더퀴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면화된 스트레스”(internalized stress)와 “내면화된 스티그마”(internalized stigma)와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 불안, 약물남용 등이 동반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은 대개 무의식화, 즉 내면화된다. 이런 무의식화된 “적대적 소아기 경험”은 현재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내면화된 스트레스”(internalized stress)와 “내면화된 스티그마”(internalized stigma)와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 불안, 약물남용, HIV/AIDS, 흡연, 폭조피해(victimization), 등등 건강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이다.

젠더퀴어 사람들의 신체건강도 사회적 차별, 즉 성소수자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에 의한 보호”는 스티그마의 내면화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다. 아마도 스티그마의 내면화는 트랜스젠더의 정신사회적 원인으로 알려진 “적대적 소아기 경험”과 연결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법적 정책적 보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적 치유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젠더퀴어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는, 젠더불쾌증에 서의 치유 때 같이 기술될 예정이다.)

결연한 의지: 자기 개발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번역된 John Maxwell의 책에서 Maxwell은 리더십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리더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은 의도성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리더십이 죽적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는 먹었으나 미숙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리더로서의 성장은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성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주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상대평가하였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국력계산 방정식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미국은 500점 만점을 받

는 작품(?)이자 자연적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죽은 생명은 부활하는 대신 부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 CIA의 수석분석가였으며 부국장을 역임한 레이 클라인(Ray S. Cline)은 1990년대 세계 각국의 국력을 전략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저서에서 나라의 국력을 계산하는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Power=(Critical Mass+economy+Military) x (Strategy+Will). 한국말로 풀어보면 국력=(국토 및 인구+경제력+군사력) x (전략+의지)이다.

클라인은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브라질 강대한 국토를 갖은 나라에 국토면에서 100점 만점을 주었으며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에 인구면에서 100점 만점을 주었다. 경제력은 미국에 200점 만점을 주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력을 미국에 비교하여 상대평가하였다.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가 100점 만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상대평가하였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국력계산 방정식의 앞부

분은 반면 국토면적, 인구, 군사력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았으나 경제가 이에 미치지 못한 러시아는 410점밖에 받을 수 없었다.

클라인이 제시한 방정식의 뒷부분은 전략(S)과 국민의 의지(W)를 더한 점수이다. 그는 S와 W를 합한 점수가 10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강한 나라에는 가산점을 주고, 이것이 약한 나라에는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국력의 뒷부분을 계산했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영세 중립국이지만 자신을 침략하는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전략과 의지가 분명한 스위스에는 1점 만점에 1.5점을 준 반면 전략과 의지가 없는 베트남, 양골라 등의 나라는 0.4점을 주었다. 클라인의 공식을 월남전에 적용한다면 초강대국인 미국이 국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에 있어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열등한 월남에 패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호찌민의 전략적 리더십 아래 계릴라전에 타월했으며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초개 같이 내어 놓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월남에 비해 미군은 정규전에만 강할 뿐 계릴

라 전략이 없었으며 목숨을 걸고 월남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술이나 의지가 0이었다면 방정식 앞자리 수자가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이에 0을 곱한 국력의 수치는 결국 0일뿐이다.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두 배이며 경제력은 50배가 넘는다. 군사력의 양은 북한이 남한을 앞서나 무기의 체계, 무기의 성능, 연간 국방예산등 군사력의 질은 남한의 그것과 비교 조차 할 수 없이 낙후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은 남한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6.25의 기억 때문인지 오히려 남한이 북한을 두려워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클라인의 방정식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남한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비록 전쟁을 즐기지는 않지만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결전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화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와 평화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조차 내어 놓겠다는 의지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신성한 전리품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리”는 강력한

의지가 식민지 미국을 200여 년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영국을 꺾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의지가 0이면 국력은 0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들에게 구하니 하나님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단 1:8-9).

리더로 성장하려면 뜻을 정해야 한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의지를 굳건히 세웠다는 말이다. 간정에 휘둘리지 말고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 성장과 발전의 시작은 의지에 달려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개인적 발전을 위한 목표가 작심 3일로 변해버렸다면 다시 뜻을 세우라. 그리고 정진하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정진하는 리더는 자신과 조직을 발전을 반드시 가지고 올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다. 의지력이 강한 리더만이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SAMJIN 삼진제약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에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철학의 역사와 신학의 흐름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철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철학이 뭐냐를 말하고자 하면, 어떤 형태든지 인간들이 하는 사고(생각)를 말한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 학문화 한 것이 철학이다. 사람의 생각하는 내용이 인간존재나 삶에 유익을 제공하는데 가치가 있으면 학문화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철학자라 부른다. 반면, 그저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학자라 부르지 않는다.

이러한 깊이 있고 가치있는 사고를 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었다. 주전 600년 경의 헤라크레이토스(Heraclitus), 탈레스(Thales), 피타고라스(Pythagoras)같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연의 운동의 법칙, 수학적 원리 등을 발견한 철학자들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인류 문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철학자들이었다.

철학자 하면, 주전 4세기 역시 그리스인들이었

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또는 크세노폰 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그들의 선대 철학자들의 관심이었던 자연과 학문에 보다 인간의 선이나 행복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더 깊게는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있는 일일까에 대해 논한 인물들이었다. 주로 인간 실제나, 도덕을 그들 학문의 주제로 삼았다. 이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1세기에는 로마가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시세로(일명 카케로) 신학쪽의 어거스틴 같은 인물들이다. 당시 로마철학의 특징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자연과학, 인간존재, 또는 도덕적 내용보다 힘,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말하며, 나아가 어거스틴은 이 힘의 논리를 신학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신학을 하기도 했다.

16세기 즈음에는 철학이 유럽 북부 영국으로 건너갔다. 대표적인 인물이 존 록(John Locke), 토마스 휙스(Thomas Hobbes)같은 학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인문주의의 활성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나 계시론 보다, 인간(문)주의(Humanism)로서 인간의 경험이나 합리성을 강조하는 철학을 구사하였다. 인간의 정신을 깨우고, 인간교양을 함양하는 계몽주의(Enlightenment)와 더불어 인문주의 한 가지인 자유주의(Liberalism)를 주장했다.

인간 내면성보다 외향의 현실적 삶의 가치를 중요시한 철학을 한 것이다. 품위 있게 살자는 주의다.

그런 철학 사조가 이번에는 독일로 넘어 오게 되었다. 사실, 그때까지 독일은 영국의 명예혁명(1688)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나, 프랑스의 시민혁명(1789-1799)으로 인한 절대군주의 폐해 타파로 인한 시민들의 권리향상과 같은 특별한 세계 사적 공헌이 없었다. 대신, 독일은 학문적 혁명으로 인간세계에 공헌했다. 대표적인 것은 임마누엘 칸트와 그의 이성주의 철학이다.

18세기 칸트의 이성주의는 그때까지의 철학적 주제나 방법론에서 색다른 차원이었다. 다른 사조처럼 신학적 관점의 연구에서 떠나 자연주의 철학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인간, 우주만물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자연주의 철학이다. 나아가 자연주의를 설명하는 이성을 그의 철학 실체의 도구로 삼았다. 이성으로 철학을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이성은 모든 철학이나 학문 연구 방법론의 실제였다. 그의 유명한 “순수이성비판”(비판이란 비판이 아닌 연구, 또는 평가방법론을 뜻한다)도 이러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중심으로 하여 나온 것이다.

헤겔도 그때까지 해 오던 철학 연구 내용이나 방법론을 달리했다. 그 역시 이성중심의 논리를 중시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3단 논법이나, 변증법(Dialectics)도 그로부터 나왔다. 역사를 인간 경험,

도덕, 인식론 차원에서 보다, 정신에서 이해하려 했다. 정신을 형성하는 실제, 그리고 역사운행의 실제는 계시보다 이성임을 말한 것이다(관심이 가는 부분중의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주제나 인용에 있어서 칸트가 1위, 헤겔이 2위 순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독일 철학자들이 맹활약했다. 19-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하이데거, 쌔르트르, 그리고 신학계에서 불트만 같은 인물들도 같은 역할을 했다. 평화주의를 외치다 순교한 본 회포도 있고, 정치신학자로 유명한 몰트만도 배출했다. 20세기 들어 철학이 프랑스로 넘어가 프랑스인들이 다시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 까지만 해도 독일철학의 실존주이나 인식론 등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커졌고, 결국, 그들의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업적들이 인간 사고나 정신사를 이끌어 왔던 것은 틀림없다 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독일신학도 정통주의에서 자유주의의 신학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슐라이에르마허(Schleiermacher)가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표적인 첫 주자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하르낙(Adolf Von Harnack), 리츨(Albrecht Ritschl)같은 학자들도 선두주자로 활약했다. 이들은 성서의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다, 헤겔처럼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분석, 이해하려 한 신학자

들이다. 인간심리, 정신, 윤리, 사고방식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적 성향에 반대한 바르트는 정통주의 신학 회복을 위해 신정통주의(Neo-Orthodox) 신학을 내어놓기도 했다.

독일은 각성 차원의 계몽주의를 넘어 가장 인간 정신 면모를 체계적으로 갖추게 한 학문적 공헌, 즉, 인간정신의 의식을 높이고, 무슨 일이든지 바른 사고 속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이성주의 철학으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창조한 공로가 있다. 또한, 신학계에서 현대신학의 장르를 창시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 이와는 반대로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이성주의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운행의 능력을 격하시킨 관점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프랑스계가 철학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칸트나 헤겔이 세웠던 이성주의의 마저도 부정하는 해체주의의 철학을 했다. 이제는 그 양상을 넘어,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같은 경우, 과학연구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장하는 시기까지 왔다. 그가 “Homo Deus”를 썼는데, 말 그대로 “인간 신”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인간은 어디까지 달려 갈지 자못 궁금하다. 인간이 신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일까 망상일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

이기범 목사
타코마제일장로교회

첫째,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목사나 장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시고, 일부 정지기들(종직자들)이 업무 소홀과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뜨겁고, 주님의 능력이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실제 삶에서 은혜를 키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옥을 얻어먹을지도,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역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고, 기쁜 소식을 대면으로 전하고, 인터넷으로 전하며, 소그룹이나 개인 만남을 통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마태 24:14). 사명감이 불타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셋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것 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하십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혼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곁에 머물러주고, 함께 울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지요.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주님께 거쳐 받은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섬김형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리더가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성장과 복지를 우선시하고, 그들을 돋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리더십 스타일이다. 이 리더십은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리더가 섬김의 자세를 통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강조 한다. 핵심 가치로는 공감, 경청, 협력, 공동체의식, 비전 제시 등이 포함된다.

이런 리더십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원초적인 리더십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지혜를 구하러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삶인지 알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헬라인들은 발상이었다. 마침 그 시점이 예수가 예루살렘을 최후로 방

문해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밝혔을 때였다. 이때에 예수는 인류 사에 오래도록 기억할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가 진리를 구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참된 의미 있는 삶이란 마치 한 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요즘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거나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장악해 최고의 권한을 부여받아 국정을 운영하고자하는 당연한 정치적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의료계의 투쟁도 이에는 기자만 대화의 자리에 나와서 서로의 간극을 해결하려는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담보로 이런 행태를 끌고 갈 것인지 국민은 최고 지성인들에게 실망하고 피로감을 심하게 겪고 있다.

기업들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외국에서 찾아온 아주 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노동의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한 줌의 재료 사라

지는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기업의 윤리를 질타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속성 상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순 없는 것인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리더십 철학은 직원들을 우선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CEO 허브 켈러하(Herb Kelleher)는 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공에 기여했다.

페타고니아(Patagonia)의 창립자 이븐 수나드는 섬김형 리더십으로 회사의 이익보다 환경 보호와 직원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며, 의사결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회사의 수익 일부를 환경 보호 활동에 기부하는 등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선진적인 섬김형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인, 의료인, 경제인들을 보고 싶다. 한 알의 밀로 썩어져 언젠가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실화를 보고 싶다.

섬김형 리더십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구원론: 십자가의 은혜(3)

최대한 박사
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3. 십자가의 은혜

무엇보다 바울신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적 성취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명명합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갈라디아서 2:20절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구절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소개한 롬 5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람이 죽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리"(롬 5:15, 20-21)

그리고 앱 1:28의 말씀도 살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모든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하드라마를 저는 나름대로 4부작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연극으로 치면 1막부터 4막까지 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1막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협약에 따라 모든 구원의 계획을 작성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2막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구속협약에 따라 성자 하나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막은 구원의 적용입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끌기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것을 빼앗아 갈 힘과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4막은 '영화'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훌연히 변화를 받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계속>

인생의 영광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확인을 할 시간입니다. 더불어 가을의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감사가 피어 오릅니다.

코스모스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름 모를 들판에

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서 있는 수수하고 소박하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정겨운 꽃입니다. 자세히 보면 먼저 된 꽃은 시들고 또 다른 꽃이 피어남으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꽃은 아름답습니다. 화초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영광을 풀의 꽃으로 비유합니다. 좋은 의미보다 잠시 있다 떨어지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화려한 꽃이 떨어질 때는 마르고 보잘것없으며 오히려 빛바랜 추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밭에 밟히고 빛자루에 쓸려야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꽃이 떨어짐으로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엽이 떨어져 애너지를 저장하여 겨울의 추위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꽃이 떨어지고, 나엽이 떨어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꽃과 나무의 또 다른 성숙입니다.

사람의 영광도 잠시입니다. 내려갈 때를 알고 멈출 줄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섬김과 성숙은 지속적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선한 싸움과 사명의 경주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잠된 영광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오병이어 같은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영광은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최고의 꽃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귀하고 여자가 넣은 자 중 가장 큰 자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때 영광입니다.

社說

핵무기 시설 공개한 북한의 뻔한 속셈

북한이 핵탄두에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김정은이 핵무기연 구소와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 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HEU 생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이다. 그걸 공개한 건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당장이라도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을 갖췄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또 최근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의 불만을 '핵무력 발전' 성과로 덮으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정작 주목할 점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대미 협상용 포석일 것이라 해석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미국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도 HEU 생산시설만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랬던 북한이 핵무기 생산 기반인 HEU 시설을 스스로 공개한 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북한 내 어느 장소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 미국이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기존 영변 핵시설이나 아니면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는 건 북한이 HEU 생산시설 내부를 압축해 공개했을 뿐 그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선 철저히 험구했기 때문이다.

공개한 사전에는 핵탄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질인 농축 우라늄 제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와 관련한 여러 장치들이 빠짐없이 들어차 있다. 이런 사설을 북한이 공개했다는 건 고농축 우라늄 제조 능력, 즉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김정은이 호언장담한 대로 '핵무기를 기하급 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 온 것으로 볼 때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1만개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약 15~2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고 약 750~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1년 동안 돌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왜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감춰두었던 핵시설 내부를 공개했는가 하는 점이다. 자기들이 상당한 핵무기 생산 보유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하는 의도가 분명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는 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등 복잡한 국제관계를 겨냥했을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 김정은이 현지 지도에 나선 핵관련 시설이 북한의 어느 지역인지, 또 언제 시찰을 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인지 오래 전에 있었던 걸 특정한 시기에 맞춰 공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김정은이 었던 HEU 생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은 미국의 대선이 50여일 앞둔 날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좋은 시기다. 향후 북핵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이 깔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 협상 전략이다. 과거에 미국 정부와 유엔 등에서 거론했던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스스로 핵시설 내부를 공개한 것도 당당히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계산된 포석인 동시에 미국의 차기 정부가 '비핵화'라는 말을 끼어지 못하게 하려는 암복으로 비친다.

이런 북한의 당당한 태도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출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였다. 공화당은 물론 4년 전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던 민주당까지 북한 비핵화가 슬며시 사라지면서 결국 북한이 노리는 '핵 보유국' 용인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북한은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뒤 탄도미사일을 쌌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전후해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북한이 핵 시설을 공개한 것을 놓고 7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 있다. 우리 정부도 핵 도발의 전조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미 대선에서 북핵 이슈를 부각시켜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돼도 북한이 의도한 대로 풀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이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이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를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생존이 걸린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현실이란 점에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북핵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한미군사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안보 선택 카드를 다양화하는 지혜가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보의 최종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달린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경기도, 20일부터 어린이·임산부·65세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 접종

경기도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 10월 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 병이 유행한 만큼, 감염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통한 건강 보호와 감염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을 추진한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동시 접



©경기도청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를 정례화하는 추세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주소지 관계 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침착이 필요하다.

국가 지원 대상 외 시군별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는 장애인,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시군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는 예방 접종 실시를 권장한다"라며 "감염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다은 기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934억 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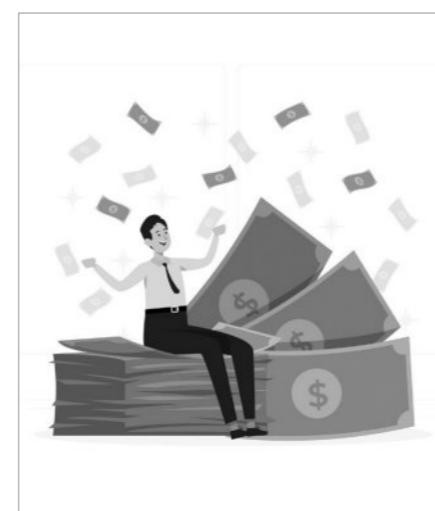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 원을 투입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관련 기관 등 의 의견을 수렴해 사람 중심 통합지원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평생돌봄 서비스 실현, 삶의 영역별 포괄지원 서비스 실현, 기술혁신 기반 디지털 복지 구현 등 4가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2025년 312억 원, 2026년 319억 원 등 총 934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차별 없이 살 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9월 주인공은 청년' 서울 전역에서 청년 위한 행사 풍성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20일(금)부터 9월 29일(일)까지 약 열흘간 서울 곳곳에서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여의도공원, 서울청년센터 등 서울 곳곳에서 청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청년주간 슬로건은 "All Ways With Youth"이다. 슬로건에는 서울시와 정부가 청년과 항상(always) 함께하고, 청년의 모든 길(all ways)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행사 첫날인 9월 20일(금)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유수의 기업에서 일하는 현직자 선배의 취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커리어 부트캠프>가 열린다. 9월 20일(금)~22일(일)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청년정책 박람회>도 진행된다.

청년의 날인 9월 21일(토) 15시에 열리는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청년의 날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청년정책 로드맵 '청년행복프로젝트'에 기반해 일자리·주거·복지·교육·참여 등 5개 분야에 대해 54개 정책을 통해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충족하게 지원하고 있다.

시 대표 청년정책으로는 4차 산업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여러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자내는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고립·온둔 청년 지원사업' 등이 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도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 중 하나다.

9월 20일(금) 15시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한 <커리어 부트캠프>가 열린다. 서울시 단독 주최로 진행되는 <커리어 부트캠프>는 멘토링과 특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멘토링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유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 52명이 멘토로 참여한다. 멘토링 분야로는 마케팅/광고/홍보, IT/개발/데이터, (스타트업) 창업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선정했다.

멘토링 참여자는 사전 신청·접수를 통



해 모집했다. 참여자들은 매칭된 현직자 멘토를 만나 희망 직무 분야 취업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멘토링은 40분 씩 총 3타임에 걸쳐 진행되어, 참여자들은 이날 최대 3명의 현직자 멘토를 만날 수 있다.

9월 20일(금)부터 9월 22일(일)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정책 능력고사, 고립·온둔 청년 응원 편지 작성, 면접 정장 대여 체험, 영테크 재무 상담, 청년 일자리 매칭 전망창구 취업 상담 등 15개 사업에 대해 24개 부스를 운영한다.

박람회 기간 중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9월 21일(토)에는 전국 17개 시도 청년 아티스트의 무대가 이어진 후 가수 다이나미드와 츄의 축하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9월 22일(일)에는 유튜버 워라밸(박위)과 함께하는 고민 나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2024년 서울청년패널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청년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청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만 19~39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를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청년의 성장,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오전에 열리는 첫 번째 세션(<서울청년패널 세션>)에서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단장이 '서울청년패널로 본 청년의 성장과 자립: 이행기 취약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오후에는 서울 청년의 취약성과 회복탄력성, '청년으로 개인화와 가족형성 전망' 등 2개 세션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곳곳에 위치한 서울청년센터에서도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은 9월 21일(토) 15시부터 19시까지 건대 캠퍼스에서 서울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청년아티스트 공연, 프리미켓, 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서울청년센터 성동은 청년의 날을 기념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대화의 식탁(9. 21.)',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 정책과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똑똑 상담소(9. 19~9. 21.)'를 진행한다. 9월 27일(금)에는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리는 성동구 청년축제에 참여해 서울청년센터 성동을 소개하는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청년센터 양천은 9월 27일(금)~9월 29일(일) '청년 날개를 달고 날게!'라는 제목으로 청년콘서트, 인플루언서 강연, 퀴즈대회 등을 진행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해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데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희 기자

승강기 안전의
First & Best
승강기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바꾸다!
고품격 생활과
건물의 가치를
선사하는 신광!

신광엘리베이터(주) 신광나라엘(주)

안전을 지키는 신광엘리베이터는 첨단 유지보수!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신광엘리베이터!

- 자체개발한 ERP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승강기 이력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빠르게 진단하여 완벽한 보수관리를 책임집니다!
- 최고의 보수품질과 엄격한 사전 예방점검으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광엘리베이터!
- 24시간 접수 및 고장지원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2000년 아파트 승강기 리모델링 상위 실적!
국내 500여 승강기 유지보수 전문업체 중 유지보수 상위 실적!
중소 유지보수업체 최초로 국제품질 규격 ISO9002인증!
행정안전부지정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벤처기업 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선정!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미디어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구 시흥 사랑의교회 선교방송)

장 대 수 목사
(당회장, 철학박사(Ph.D))

장대수목사의 드라마같은
설교를 유튜브로 경험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장대수목사 검색해보세요.

장대수 목사

010-6325-3916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담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을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낫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2025-1학기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정규 MA. Ph.D반)

칼빈대학교대학원 (1학년) 석사.박사	각 10명	사회복지 및 상담심리치료학. 석사. 박사 (토1일)
동원대학 (1학년) 명지대학 (3학년)	20명	사회복지. 평생교육사. 장학금 지급

칼빈대학교 담당교수 정효신 박사 010.4232.7704

장애인 활동지원사. 현재모집 중 (주중 월~금 & 주말반)

일 반 반	40시간	18세 이상 남녀 학력무관	◆국가공인 이수증을 취득 ◆국가가 급여를 지급
자격증반	1,2반	복지사 요양사 간호조무사	◆취업후 보험과 퇴직금 받음
토 요 반	32시간	상기와 같은 시간으로수업	◆굿피플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있음

법인: 착한 사람들 부설 **한국복지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원**

원장 정상문 박사 문의 031)751-4977. 010-5536.8882

목회학 석사 (M.Div.eq) 9월 개강반 모집중

목회학석사eq (M.Div.eq)	목회석사는 계절학기로 매월 첫주 토요일 8주 집중교육으로 수도국제대학원대학 총장의 M.Div.eq 학위를 받게 됩니다. 준목(강도사)은 남녀 목사로 임직받아 사역합니다.
-----------------------	---

국제개혁신학원 MOU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원장 정상문 박사 Ph.D 010.5536.8882

[민간자격코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 **한국복지문화교육원**
평생교육법에 준한 한국복지문화교육원 제19조에 의한 등로된 민간자격증 과정입니다. 평생교육에 의한 강좌이며 단기간 코스입니다.

[과정] ~

병원동행사(5h)= 미래사회교육재단의 자격증

응급처치요원(8h) 응급처치강사(16h)=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리상담사. 실버 심리상담사. 멘토링 웨다잉지도사. 에니어그램지도사. 인성지도사

[한국복지문화교육원] 캘리그라피(30h) (매주 토요일 각 과별 전문교수가 직강 수업함)

지도교수: 정상문 박사 010.5536.8882

성남 모란역 12번출구 앞 100M 윤현빌딩 7F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6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 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꽤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서울대학교원활한
혈액순환!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항산화
건강까지하루
2캡슐고품질
노르웨이산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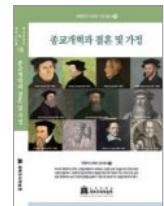
우체국 107045-02-188054

농 협 301-0336-3023-11

예금주: 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총서 18권 「종교개혁과 결혼 및 가정」 출판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원장 황대우)이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총서 18권 「종교개혁과 결혼 및 가정」을 출판했다고 최근 밝혔다. 황대우 원장은 발간사에서 “학술원이 2024년에 출간하는 신학과 신앙 총서 제18권 주제는 ‘종교개혁과 결혼 및 가정’이다. 종교 개혁자들을 ‘결혼의 선구자들’ 혹은 결혼을 위한 투쟁가들이라 불러도 결코 과하지 않을 정도로 16세기는 결혼의 혁명시대였다”며 “중세시대 결혼은 그 자체로 일곱 성례 가운데 하나일 만큼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었지만 중세교회는 결혼한 신자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신자를 신앙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다”고 했다.

이어 “중세시대의 세 가지 계급인 성직자와 귀족과 평민 가운데 최고의 계급은 교황과 추기경을 비롯한 성직자들이었다. 성직계급은 수도사처럼 결혼하지 않을 것을 서야하는 주교와 사제들로 구성된다”며 “결과적으로 결혼보다는 비혼이 더 신성하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결혼하지 않은 모든 성직자를 통칭하여 ‘클레리쿠스’(clericus)라 불렀는데, 이것은 어원상 ‘사제로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 구야시대의 사제들은 결혼한 레위인들이었지만 중세시대의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는 결혼보다 비혼이 더 신성하다는 것을 제도로 만들고 교리로 가르쳤다. 즉 세상보다는 수도원이, 결혼한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보다는 결혼을 금하는 수도사공

동체와 사제공동체가 훨씬 더 신성한 곳이라는 인식을 제도로 확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수도사와 사제 즉 성직자가 되는 것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쳤던 것”이라며 “그런데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을 성례로 간주하지 않으면서도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비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락된 것이므로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사와 혹은 사제서약으로 성직자들을 속박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비성경적”이라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명령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제도로서의 수도원은 독신서약으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중세교회의 수도원신학을 대신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결혼신학이었다”며 “결혼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성한 제도라면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은 부부의 성생활에 의해 터득한 곳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여기에서 실린 11편의 옥고들은 ‘혼자’를 신성시한 중세의 가르침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무장하여 ‘함께’라는 공동체의 원리와 정신을 재발견한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 추종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했는지 잘 소개한다”고 했다. 다음은 책에 실린 11편의 옥고.

1. 마틴 루터의 가정과 결혼 이해 - 김용주

2. 결혼에 대한 츠빙글리의 이해 - 유정모

3. 부씨의 결혼관 - 황대우
4. 멜랑흐론의 결혼과 가정 - 류성민
5. 결혼과 가정에 관한 베미글리의 사상 - 김진홍
6. 하인리히 불링거의 기독교 가정생활 - 박상봉
7. 존 낙스가 가르친 결혼과 가정 - 박재은
8. 베자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해 - 양신혜
9. 우르시누스와 결혼과 가정 - 이남규
10. 푸티우스가 가르친 결혼과 가정 - 권경철
11. 청교도 윌리엄 페킨스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르침 - 우병훈

그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 수도원이 사라진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종교개혁자들은 ‘홀로’의 영성을 비성경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수도원을 없애는 대신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결혼과 가정을 새롭게 다시 세웠다. 가정은 ‘함께’라는 사회의 출발점이자 최소단위이다. 경건한 부부생활과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결혼과 가정에 관한 성경적 진리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진리에 전작하여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가르친 종교개혁의 정신과 원리도 함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편,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총서 18권 「종교개혁과 결혼 및 가정」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장요한 기자

신간

나의 사랑 아프가니스탄

샘물 교회 단기 선교팀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교회를 향한 거센 비난과 비판이 있었다. 교회 내에서도 너무나도 아픈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그 피흘림마저 비판과 비난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다. 한국의 선교팀과 미군도 그 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뿐만 아니라 순교의 피는 귀한 열매가 되어 척박한 그 땅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저자 박종순 목사(제자들교회 담임)는 순교 이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사역과 열매들을 보고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 물어 생기는 논리적인 성의 산물이 아니다. 성숙은 나의 바닥을 보고 그 바닥에서부터 온몸이 부딪혀 새롭게 일어나려는 영적 감각의 발버둥이다. 선교지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대낌도, 투덜거림도 냉소주의도 발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숙은 가장 우발적인 마주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나의 본성을 오직 은혜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영적 각성이다”고 했다.

이어 “선교지까지 가는 여정이 주는 축복은 ‘발견’이다. 내

가 기대하던 것이 아닌, 기대하지도 않았던 다른 인생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일정이 주는 축복이다. 내 안의 이 기심과 교묘히 숨어있던 내 자아가 발견되는 것이 선교가 주는 축복이다. 선교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이런 환경이 아니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나의 숨겨진 본연의 모습을 날것으로 마주하는 경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언제나 세상은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전쟁과 질병, 폭력과 아픔의 문제와 함께 살아나야 하는 삶의 환경도 때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극적인 삶이 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외면하고 싶을 정도다. 다시 한번 깨닫는다. 선교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씩 해 보이는 비극과 같은 환경을 마주 대하는 것이다.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은 것일수록 더욱 가까이 두고자 노력하는 것이 선교적 사명”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한국인의 기원

“한국인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을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던져봤을 질문이지만 근거가 부족해 지금까지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책 ‘한국인의 기원’은 고유전학의 발전과 함께 사파엔스가 어떻게 한반도에 이르렀는지 설명한다.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인 저자 박정재는 고기후학과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등을 포함해 헤아려온 데이터를 하나로 엮어 한국인의 형성 과정을 제시했다.

저자는 추위를 피해 남하한 기후 난민이 곧 한국인의 뿌리라고 말한다.

▲ 2만5000년 전 마지막 빙기 최성기의 극심한 추위 ▲온화한 흘로세 기후 속 8200년 전 갑작스러운 한랭화 ▲흘로세 후반기 적도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와 태양 흑점 수의 변화로 인한 주기적 건조 한랭기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제 한반도

에 진입했고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추적했다.

저자는 “북방민이 남하할 때마다 한반도 사회는 갈등에 휩싸였지만 이들의 문화 전파로 한반도의 사회가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춰 나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기후 변화는 유전자뿐 아니라 문화도 뒤섞으며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하다. 각 지역에서 인간집단이 형성될 때 기후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인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원의 사람들이 섞였다. (종족) 혹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흘러들어와서 모여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한반도인, 즉 한국인이다”(13~14쪽) 조수원 기자

9월, 작가들의 말말말



AI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일상과 산업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미래 사회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아심 찬 목표를 세웠으며, 중국도 2030년 까지 AI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연구 경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의 간접함에 비유될 정도로 치열하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사이버 세계에서의 세력 균형 및 억지 능력 개발이 시작되었다. AI의 영향력은 민간 영역을 넘어 군사 영역에도 미치고 있으며, 모의 전투에서 AI가 인간 조종사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각국은 AI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AI에 대한 우리의 안전상 제한 설정을 누군가는 무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AI 기술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규제 그리고 대처를 위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민정 ‘AI 이후 트랜스휴먼’



나 역시 눈앞에서 40대 남성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고 뜨거운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흘렸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며 끝내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계속 자자야 하느냐고 통곡하고 원망했던 내 불신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회개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멈추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다. 대형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며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교만한 마음, 한 영혼의 존귀한 가치에 대해 어느새 마음이 싱하고 굳어져 있던 내 모습을 철저히 회개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시간이었다. 이은호 ‘성령의 전도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크신 일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설득하실 때 주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발걸음이 자비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주께 항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오, 실제로 복된 정복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소서. 사랑의 포로인 내가 주의 승리를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께서 나를 이기셨음을 고백할 때 모든 이가 이렇게 친마할 것입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 11:36 사랑이나 생명,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버트 엘더 ‘하늘에 닿는 기도’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사야 21:11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지금 어떤 원수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류가 무수히 많이 퍼져 있으며 매 시간마다 새로운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단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둠이 다스릴 때는 죄들이 그 숨어 있던 곳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속히 파수대로 올라가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해지려는 공격들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를 위해 계획된 그 악이 단지 사탄의 소원에서 나온 것이면, 우리가 밀까부르듯 까불림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 파수꾼이신 자비로운 주여, 우리에게 계속 원수들의 공격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시온을 위해 주의 평강을 넘치게 보여 주소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지금 교회의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창하고 형명한 날씨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때의 징조들을 살펴보며 싸움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하늘에는 어떤 별들이 떠 있습니까? 현재의 우리 경우에 해당되는 소중한 약속들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보를 올리는 주여, 우리에게 위안도 주십시오. 북극성인 그리스도는 그의 자리에 항상 계시며 모든 별들은 주의 오른 편에 안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여, 아침은 언제 옵니까? 신랑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의 태양으로 오고 계시다는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낮이 올거라는 언약

으로 새벽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날은 언제 밝아 오며 그 그림자들은 언제 도망갈 것습니까?

오 예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 오늘 몸으로 재림하시지 않고 대신 한숨짓고 있는 세계 영으로 찾아오실거라면, 제 영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하게 해주세요.

“이제 온 땅은 새 아침과 함께 밝고 환해졌는데 내 온 가슴은 이렇게 냉랭하고 어둡고 슬프니 영혼의 태양이시여, 주께서 오실 징조를 보여 주소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찰스 스펠전의 아침묵상 | 열방선교단

날씨를 예상해 주소서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스도의 탁월성 (2)

II.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극 단의 탁월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모셔 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종류의 논증과 동기들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주로서의 충만하신과 충족하신이 위에 언급한 탁월성 안에 영광스럽게 나타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그 상태에서 무력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핏덩이 채 벼려진 유아처럼 가련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이십니다.

우리는 약할지도라도 그는 강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천하고 비참한 피조물이며 혐오스러운 별레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자신 그리스도는 무한히 존귀한 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부패했지만, 그리스도는 무한히 거룩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증스럽지만, 그리스도는 사랑스러우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자극하였지만, 그리스도는

도는 하나님의 눈에 무한히 고귀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존귀가 있을 뿐 아니라, 무한한 낮아지심과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궁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가련하고 고통하는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도울 능력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충분한 강력한 기초요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련하고 무가치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영혼을 초청하고 담대하게 하는 무한한 은혜와 온유함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아주신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

스도는 당신보다 큰 분이시지만, 그는 당신보다 무한히 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오기만 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양과 같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가 두려운 위엄을 가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시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실은 불쌍한 죄인을 격려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그는 창조자이시면서 피조물이시며 그는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분입니다. 이것은 불쌍한 죄인들이 그에

게 나아오도록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자신을 그에게 던지십시오. 당신은 은혜롭고 온유한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자일지도

그는 단지 당신의 원수에게 사자일 뿐이고 당신에게는 어린양이십니다.

당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당신은 이와 같은 한 구주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천하고 비열하고 무지한 죄인이라도 경멸을 당할 위험이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당신보다 큰 분이시지만, 그는 당신보다 무한히 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고통을 안고 찾아올 때 멸시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 중심으로 그분에게 나온다면 어떤 부모보다도 더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왜 당신의 영혼을 담대하게 그리스도

도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그는 당신의 영혼의 원수를 정복할 만큼 강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즉 “전능하신 하나님”(사 9:6)보다 더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운 눈길로 당신을 주목하실 만큼 낮아지지 않으실까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정에서 군인들이 때리고 침을 벌도록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된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를 때리는 사람에게 등이 벗겨진 채 꽁꽁 묶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바로 여기에 가련하고 무가치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영혼을 초청하고 담대하게 하는 무한한 은혜와 온유함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으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리스도께서 당신을 영접하셔도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신 아들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절하시는 것은 자신을 거절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2. 당신이 구원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없

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의 탁월성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위대한 것이고 선입니까? 무엇이 존귀하고 유익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가까이 계셔서 당신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기 원하십니까? 아내와 남편,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지체와 같이 영적인 연합으로 하나님께 된 그 분보다 더 가까운 자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와 같이 당신과 연합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죄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크고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신 구주를 모시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보다 더 탁월한 일을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참 하나님으로 일뿐 아니라, 참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덧입으신 것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설령 그가 행하신 일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담당하신 고난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세주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가 되기 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광동 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카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반세기 광동의 뜻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상화의 진한 정성,
광동 상화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Kwangdong

제조·판매원: 광동제약

무료
상담

1899-1260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 -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자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로지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자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송태훈 칼럼 만년에 타락한 유다 왕 아사

국가는 교회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

아사는 주전 930년경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조를 통치한 제3대 왕으로 부임했다. 부친은 남유다 제2대 왕 아비암이며, 모친은 암살룸의 딸 마야가다(왕상 15:9-10). 통치 초기, 아사는 이스라엘 군왕의 모델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다.

국내에서 남색(男色)하는 자를 추방하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친어머니 마야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는 이유로 폐위까지 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을 모두 모아서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부왕의 유물들을 여호와의 전에 모두 헌물했

다.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만을 참신으로 섬기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을 글자대로 절저히 준행하도록 지시했고, 주위에 설립된 산당과 태양상들은 제거했다. 아사의 신실한 종교개혁 운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오랫동안 국태민안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는 크고 작은 전쟁이 전혀 없었다(대하 15:3).

종교개혁 후에는 국내 건설에 주력했다. 국내가 태평할 때 백성들에게 호소해 성읍 및 성과와 망대를 원래대로 재건축 했다(대하 14:6-8). 북이스라엘의 바이사 왕이 아사를 둘러위해서 요새를 쌓을 정도였다(왕상 15:22, 렘 41:9). 부왕 때

에 40만이었던 군대를 몇 년 만에 58만명으로 증강했다(대하 13:3). 그의 아들 요사비이 116만으로 남유다 최강의 군대를 만드는데 기초를 세웠다(대하 17:14-17).

대외적으로 구스(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프리카의 대군(군사 100만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침입해 왔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로 호소했다. 반수에 불과한 아사의 군대가 세라의 100

만 대군을 기적적으로 거뜬하게 물리쳤다(대하 14:9-15). 구스 대군을 끌까지 주격하여, 그랄(지중해 근처 가사 남쪽)까지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만을 절저히 선포하도록 지시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최대의 평안을 하락해 주셨다.

치세 36년에 북조 이스라엘 왕 바이사가 베나민 지역에 침입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북쪽 길을 막기 위해 라마 성을 건축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국 다마세 왕 벤하단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보내서 바이사 왕을 격퇴해 주도록 부탁했다. 그 때 아사가 취한 태도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잘 우지로웠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잘 못된 것(이었다). 선지자 하나님(예후의 부친)은 “만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군까지 격파했을 것인데 기회를 놓쳤고, 전에 구스 군대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격퇴했는데 이번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고 예언했다. 목이 곧아진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노하여 선지자 하나님을 투옥하기에 이르렀다(대하 16:7-10).

아사는 만년에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서 떠났다. 치세 39년에 발에 병이 났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먼저 구하는 실수를 범했다. 결국

치세 41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 초심을 가지고 살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 처음에 가졌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만 일을 처리하려는 욕심이 생긴다. 그때 부터 매사가 정도에서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공복으로서의 초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권리와 통치 방법으로 국가와 국민을 압제한 결과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모델로 보여 준다. 한 지도자의 인간적인 사심이 자신은 물론 국가까지 파괴하는 원흉이 된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졌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권혁승 칼럼 '가상질언(2)'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

첫 번째 가상질언이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용서의 무죄선언이라면, 두 번째 가상질언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용서의 무죄선언이다.

예수께서 못 박힌 십자가 좌우편에는 함께 처형을 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마태와 마가는 그들을 강도라고 불렀고, 누가는 행악자라고 지칭하였다. ‘강도’로 반역한 헬라어 ‘메스테스’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을 암시한다. 당시 십자가는 반역이나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짓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비(非)로마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형방법이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였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마 27:44) 이들의 비난에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며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고 모욕하였고, 뒤이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조롱과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 두 강도들마저도 예수를 비난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당시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욕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잠시 후 상황이 바뀌었다. 한 강도는 비난과 욕을 계속하였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옆의 강도를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 하거나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라리”(눅 23:40-41)고 하였다. 그 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암살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라고 했다.

어떤 계기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죽음 직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예수 앞에 회개를 한 것이다. 곧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대속을 위하여 죽으심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나라의 존재와 예수께서 그

회개한 강도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회개한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물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기회, 곧 카이로스의 연속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아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엡 5:15-16)고 하였다. 여기에서 ‘세월은’ 기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스’이다. 그것은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대조를 이룬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회개였다.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다. 깨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며,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 여기에서 ‘책망’은 ‘유죄증명’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convict’라고 번역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면, 누구도 변명의 여지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회개한 강도는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 순간으로 미룰 필요는 없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열마든지 이 땅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

을 경험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땅은 하나님나라에서의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구원이 미루어질수록 영혼은 더욱 흥미로워져 구원을 얻되 초라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더없이 소중한 기간이다.

은혜 한 장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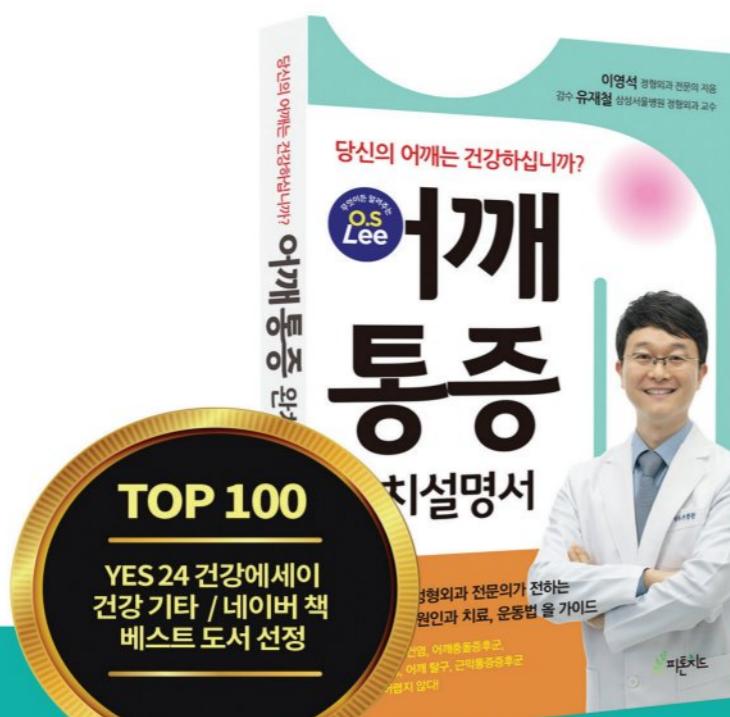
고린도전서 1:5

基督日報

기독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파토치드

교회오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1)

(고린도후서 1:3~7)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신 하나님을 친양합시다. 그는 자비로 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친송합시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아끼워하지 않고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간적 일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오히려 자신의 영과 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읽으며,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정독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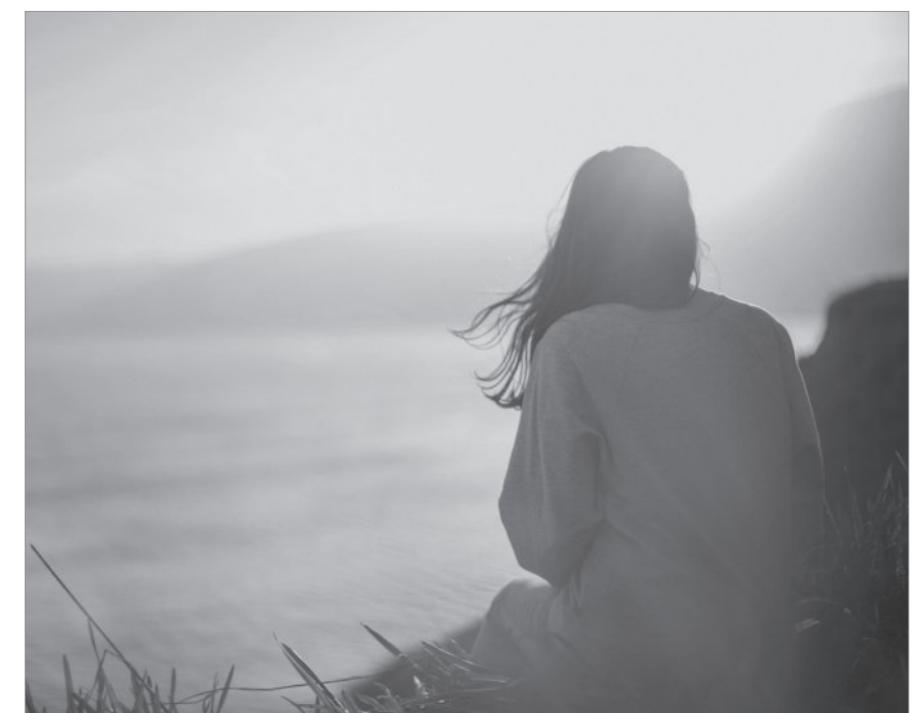
치고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 한 사람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심 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구절절이 우리를 감동 시켜 위로를 주시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자기 자신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시 119:50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좌절의 구덩이에서 건지는 생명의 밧줄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 자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능력자요, 위로자입니다.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숨기며 땅에 맞는 은신처입니다. 시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경험한 성도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 24: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환난 때에 낙심을 한다면 사단에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어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환난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품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말씀을 깨달아 알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 위로 : 본래로의 의미로 - 가까이 부름, 소환. 또는



간절, 간구, 권면, 권고, 격려, 위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고통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구원의 자리에 선다면 예수님이 말미암아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숨기며 땅에 맞는 은신처입니다. 시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경험한 성도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 24: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환난 때에 낙심을 한다면 사단에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어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환난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품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말씀을 깨달아 알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

<계속> 창골산 봉목사 제공

향유목합

영적 뜨거움의 체험

불이 들어오면 뜨겁고 불이 꺼지면 차가워집니다.

이는 물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다는 영적 체험은 하나님과의 소통(turn on)의 체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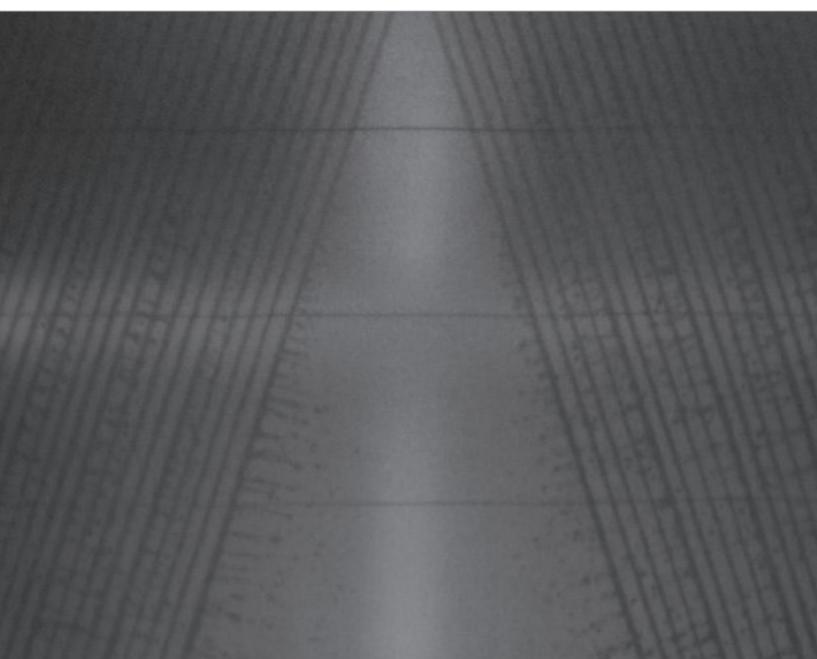
이는 죄책으로부터 놓임을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헤어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면 몸이 식고 오한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turn off) 현상입니다.

이는 죄책감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때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품 안에 안기면 뜨거운 영적 체험에 이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라



한평우 목사
로마의 세 분수 수도원(Chiesa di Tre Fontane, Chiesa di San Paolo al Martirio) 마당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샛길로 올라가면

작은 수도원을 만나게 된다. 그곳은 남녀 구분 없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꼭 우리나라 60년대의 시골 교회 같은 정감 있는 모습이다. 수도원의 건물은 화장

기 없는 민낯으로 약간 수줍은 듯 동양에서 온 방문객을 받아 준다. 안에서는 여러 자매가 인도자 없이 묵상하는 중이었다. 호기심으로 후배 목사와 불쑥 들어갔는데, 그 흔한 의자도 없이 방석들만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유럽에서는 드물고 색다른 풍경이었다. 방석은 원하는 사람에 앉아서 기도하도록 배려한 것 같다.

참으로 오랜만에 방석을 깔고 앉아 눈을 감으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옛날의 기억이 아련히 피어오른다. 매섭게 추운 겨울, 방석 하나만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던 시절 말이다. 이 수도원은 프랑스 수도사가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수

도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그 사상을 이어 받은 제자들이 수도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장식품이 거의 없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이 수도원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곧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수도원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 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수도원의 생명력은 대단하다. 이런 수도원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좋아 경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교회마다 값비싼 재료들로 최고의 건물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 교회는 지극히 화려한데 그 능력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그 옛날, 교회는 한없이 초라했어도 성령의 능력이 그 얼마나 강력했던가! 중세 어느 교황이 바티칸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내게 금과 은은 없다’는 말씀은 적합하지 않지요.” 했더니 옆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나 성하, 그 대신 지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라는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겠지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싶다. 엊그제 베네딕트의 본산인 몬테 카시노 수도원(Monte Cassino Abbey)에 갔다가 예배당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이다. 평생 검소함을 추구했고 또 가르쳤던 베네딕트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릴까 싶다. 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의도를 쉽게 넘어서려고 하는지 모른다.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벽은 금으로 빛났고 천장과 기둥마리도 그랬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중세 유럽 교회의 실상이었다. 성소는 결코 화려할 이유가 없다. 한없이 엄위한 구약의 지성소조차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화려함 대신 담백하고 엄숙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

나면서 성소를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밭 배등 친다. 그것을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나 최선을 다해 치장하고 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일본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지나치게 화려하여 들어가기가 조심스러워지기보다는, 소박하고 질朴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성소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 옛날,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은 채 예배드린 때가 그리워진다. 서울의 한 귀퉁이에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교회는 없을까? 항상 문이 열려 있고 한 귀퉁이에는 손때 묻은 작은 풍금이 소박하게 주인을 기다리는 담백하고 수수한 민낯으로 사람을 맞이하던 그 옛날 시골 교회처럼 말이다. 그래서 삶이 담담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오가다가 부담 없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말이다. 웅장하

고 화려한 디자털이 아닌 아날로그 교회, 그런 교회의 예배가 그리워진다. 투박하지만 진실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조금은 촌스러운 설교를 듣고 싶다.

이탈리아의 북구 토리노(Torino)에서 멀지 않은, 피아몬테(Piamonte)의 높은 산 앙그로나(Angrigna)에 가면 올도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현장이 있다. 그곳은 알프스의 산자락으로, 깊은 계곡이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티칸 당국과 무려 6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2백만 명이 피를 뿌려야 했

다. 흐르는 강물은 온통 그들이 흘린 피로 빨갛게 변했다고 역사가 증언한다. 그 계곡 해발 700~1,000m에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바위굴이 있다. 입구는 좁아 바짝 엎드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50~6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그곳에 들어가 유럽 목회자들이 불렀던 찬양은 감격 그 이상이었다.

◆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 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한 시내가 있어 성소를 기쁘게 함



이선종 목사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 46:4)

이야기가 있는 두 줄기, 오늘날 교회에서 두 줄기를 구분해 보았다. 크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자기와 자기를 노출시켜 세상과 섞여 있는 물줄기와 십자가 무리들의 물줄기로 나뉘어 있다.

시 살릴 불쏘시개가 없다. 또 한 무리, 어찌다 길이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불품없고 지독히 높은 샘터에 구태여 오르다 보물을 발견한다. 거기 말씀과 임재와 경외와 동행의 보물이 지천에 있다. 하늘이 하늘의 것이듯이 땅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아는 자들의 시 115:16 참 기쁨이 넘친다.

찬양은 제정신 없는 자들의 것이 아니요 경외하는 자들의 소유이다.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에 기쁨과 찬양이 저절로 넘친다.



특별하며 어색한 외길에 들어서야 보인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까지 왔다가 집단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서로 설득하고 무리 지어 하산한다. 그리고 그 러저러 좋았다고 간증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다. 그 무리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들도 성도들도 함께 있다.

후기

그 산에 멎을 것도 적었고 거칠고 황무했으며 찾는 이가 적어 불편했고 다들 무서웠다고들 말하곤 했다. 더구나 이미 그들 대부분의 의견은 거기에 다시 기기는 어렵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마 다음엔 보다 좀 더 우아하고 풍요로 놓인 곳이기를 기대했다. 그들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거룩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거룩은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였기에 그 요구는 들어줄 만한 상식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룩에 임하려면 지사적 의지가 요구되는 것인데 누구든 유관순이 될 수는 없으나고 입을 모아 강변했다. 그들 모두 성소에는 낯설고 독특한 마성과 묘한 기운이 있어 어지러웠으

며 기분이 이상했다고들 말했다. 성소는 단체 관광 여행으로 가기엔 너무 외진 곳이었다. 그들은 영주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냥 거기서 끝이었다.

보물을 본 소수의 무리들이 집을 싸서 가족들과 그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불편한 삶을 시작했다. 더구나 죽음을 요구한 거룩함의 관문을 통과하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보였다. 처음엔 가족들 모두 여기 올라오자고 한 예지자의 선택에 불만이 없지 않았으나 점점 모든 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 모두가 자기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몸은 고달프나 마음과 영이 맑고 소담하고 친의의 약초가 지천이었으며 더구나 불멸의 약초도 있

었다. 자신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아름다운 성소의 산에는 누구든 사랑받았고 천사들이었기에 찬송과 기쁨과 사랑으로 넘쳤다. 찬양하는 자의 물줄기는 거룩과 경외와 동행의 삶에서 나온다.

주님, 때때로 고단하더라도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전적으로 입문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허다한 관점이 지닌 허구를 보게 하옵소서.

하여,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나의 영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마음을 뿌리째 배우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 이선종 목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VKCC 지휘자/성서 번역가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승실대 소장 독립운동 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 역사적 가치 인정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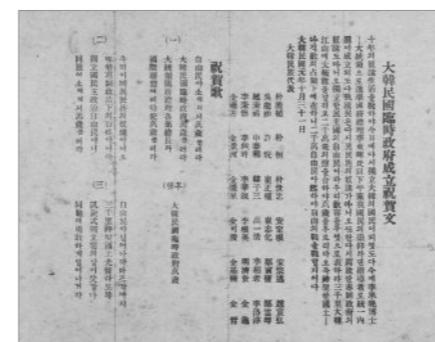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 중인 두 건의 독립운동 관련 문서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서들은 1919년 10월 31일 대한민족대표 30인이 발행한 활판 인쇄 전단으로,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당시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을 상세히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선언서’는 국한문 훈용체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과 형식이 31운동 당시의 독립선언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언서는 크게 선언문과 3개 장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약에는 독립 운동의 기본 방침과 행동 지침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사상과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번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은 해당 문서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이 문서들의 보존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측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문서의 보존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사진 ©승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장 유물의 가치를 알리고 역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초기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나래 기자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에세이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강남성결(정인교) 30 TV강단 서울온해(김태규)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김병상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현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10 [말씀] 윤길중 목사(영등포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서산성결(김형배)) 30 한소망 말씀 (류영모)(85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의교회)	20 말씀의 섬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부모에게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사 (사도행전 2024)	20 주만찬(37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26회)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년답화
오전	8:00 20 신앙에세이 30 바이브 프로젝트 40 CTS현신예배 Praise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오 자유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헌기제 목사(중앙성결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말기는 시간(1430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144회) 로마서 15강	00 복음강단 - 에버그리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백설기	50 말씀의 섬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00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2	10 새롭게하소서(10869회) 김완태 집사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00 아주 특별한 친양 5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20 말씀의 섬터 솔로몬교회 홍성익 목사 5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20 오! 마이 박스 통합본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250회) 40 목사님 궁금해요(70회)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40 [위김은더바이블] 성지탐방	20 말씀의 섬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진중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사 (사도행전 2024) 50 부모에게	00 올포원(564회)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길 목사
12:00	00 [생방송] CTS 뉴스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우리들의 지식살롱 30 말씀의 섬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도 목사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854회)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믿음의 리액션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곤 목사(동성한교회) 30 신앙에세이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섬터 남양평마리아교회 손명숙 목사 30 말씀의 섬터 소생교회 강복렬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및 춤특강 (나침반) 시즌2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9회)	30 만나 워십
오후	14:00 00 [생방송] 퀄팅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오 자유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신일(선택호) 30 새롭게하소서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5:00	4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경옥 목사(또감사선교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142회) 열왕기서 39강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6:00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섬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김영익 목사(벧살롬교회)	10 교회가는길(10회) 50 믿음의 대화 365(21회)	00 이석 목사의 읽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세에덴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섬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807회) 50 영혼의 양식_송암(김정곤)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Miracle Moment 40 TV찬양예배	00 비전설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30 아버스의 기도	10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50 CGNTV 및 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울복) 30 산위의마을 예배(김정준)(204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30 말씀의 창 - 월드리그교회 임병재 목사
저녁	19:00 00 2023 다니엘 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30 바울로부터	20 만나다(19회) 30 TV강단 두란노(이상문)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톡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힐링스토리 1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우리들의 지식살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오! 마이 박스 통합본	00 CBS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50 CBS 교회소식(964회)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21:00	00 CTS 뉴스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20 세계테마기행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4144회) 로마서 15강 50 성경풀집 이것이 궁금하다(75회)	1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백세특강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사 (사도행전 2024) 20 바울로부터	00 CBS NEWS 10 20 하나님을 기쁘시게(704회)	00 CBS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3:00	00 더 메시지 시즌2 50 신앙에세이	10 GOODTV 사내미 누기복음 1부 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오늘 만나는 큐티 50 찬양계하주님께서 말기는 시간(1431회)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리비아온 워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40 힐링송 50 우리들의 지식살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TV 및 춤특강 (나침반) 시즌2	10 새롭게하소서(10869회) 김완태 집사	0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1:00	00 김병상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20 말씀노트 3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20 세계테마기행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465회)	00 말씀의 창 - 하나님임교회 이학권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 브루카이에	0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30 TV강단 용인신성(이대희)	00 말씀의 창 -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상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매일 주와 함께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올포원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박종순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인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활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143회) 요한복음 18강 50 CBS 교회소식(964회)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힐링토크 회복

SAMSUNG

안심케어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AI 라이프

다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시는 부모님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게 자식 마음이죠

AI 라이프를 부모님 댁에 놔드려 보세요

잘일어나셨는지, 약은 잘드셨는지 늘 알 수 있고
위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죠

청소, 세탁, 설거지도 다 AI에게 맡겨두고
전기요금 걱정없이 늘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AI와 함께 늘 곁에 있는 듯
부모님을 세심히 살펴드려세요



세상 편한 AI 라이프
부모님과 함께하는 AI 라이프
특별한 혜택과 함께 시작하세요

세상에 없던
AI 라이프.

*패밀리케어, TV, 냉장고, 청수기 활용 감지 알림은 연내 지원 예정. *복약 알림: 조명, 스피커, 뮤직프레임 등 해당 기능 지원 제품에 한함. *AI 기능은 일부 모델에 한함. *소비자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장면임.